

전문신문의 미래, 콘텐츠 기술 접목과 함께 정책기반 조성에서 찾아야

한국전문신문협회, 2025 경영인 세미나 개최



‘2025 전문신문경영인 세미나’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전문신문협회(회장 김광탁, 내외뉴스통신 발행인)는 지난 6월 26~27일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연수원에서 ‘전문언론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한 혁신전략 모색’을 주제로 2025 전문신문경영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생성형 AI를 비롯한 기술혁신과 디지털 미디어 확산에 따라 구독자 감소와 수익성 악화라는 전문신문업계가 직면한 ‘고르디우스의 매듭’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마련됐다.

김광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날 전문신문업계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독자들의 지면신문 회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앞으로 전문신문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전략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세미나에서는 우병동 경성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AI를 활용한 전문신문의 혁신 전략(전창영 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원) △디지털·AI 전환기, 전문신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과제(전현진 순천대 교수,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전창영 선임연구원은 “전문신문이 지속 발전하려면 AI 환경 변화에 순응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변화를 리더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심층성과 전문성을 가진 독자적 콘텐츠 발굴 △전문신문 특성을 살린 고정 독자층 확보 △신뢰성과 가치에 기반한 수익 기반 확보 △AI 혁신기술과 협업하는 심화 보도 등을 주문했다.

나아가 전 선임연구원은 “기자는 AI에 의해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AI를 쓰는 기자에 의해 대체될



우병동 명예교수가 경영인 세미나 사회를 보고 있다.

것’이라며 전문신문 생존의 관건은 ‘AI 기술 보유’보다는 ‘실행력 있는 AI를 활용하는 조직문화의 변화’라고 조언했다.

이어 전현진 교수는 “AI 전환이 기술혁신을 넘어 정보질서를 재편하는 시대가 되었다”며 “정체성이 뚜렷한 매체일수록 디지털·AI 전환기에 생존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신문이 독자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고유의 콘텐츠를 개발해서 지식기반 사회의 필수 인프라로 재인식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전 교수는 전문신문이 안고 있는 현안 문제로 △낮은 시장 자립도 △높은 기술적·법적 리스크 △저조한 AI 활용도 등을 제기했다.

이어 “전문신문의 정책대상화,

콘텐츠제작지원, 디지털인프라강화, 효율적 정책 거버넌스 체계 구성을 통해 장기적으로 AI 시대 전문지식 생태계 구축에 전문신문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주제발표가 끝나고 이어진 종합토론을 통해 참석자들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발제자들의 주장에 공감하면서 “전문신문이 수익구조의 다변화, 디지털기반 융합 서비스 구축, 그리고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생존전략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한국전문신문협회는 1978년부터 ‘전문신문 경영인 세미나’를 개최해 전문신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획 8~9면에 계속

이진숙 기자 kosna1964@naver.com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원가입 안내

■회원가입 자격 및 절차

가. 가입자격 : 전문신문(인터넷) 발행인·대표이사 또는 발행법인

나. 가입절차 : 입회원서, 발행인 카드, 회원사 카드(양식 홈페이지 다운로드) 및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입회비와 함께 본 협회 사무국에 신청.

다. 회비내역 : 입회비 - 700,000원(기존 100만원에서 할인 적용)
월회비 - 90,000원 *연회비로 선납시 5% 할인

라. 입금계좌 : 국민은행 009-01-1135-182
(예금주 : 한국전문신문협회)
신한은행 : 100-003-283205
(예금주 : 한국전문신문협회)

■문의 : 한국전문신문협회 사무국 ☎02-334-7251~2

■협회 주요사업

가. 협력업체를 통한 신문 제작, 편집, 인쇄, 발송, 홈페이지 관리 경비 절감

나. 전문신문 육성 진흥에 관한 법률 입법 추진

다. 전문신문협회보 발행, 배부를 통한 홍보

라. 전문신문편람 제작, 배부를 통한 홍보

마. 정부공익광고·기업광고 주주 및 회원사 배정

바. 기자증 발급 및 취재편의 지원

사. 정기간행물 납본 대행 - 국립중앙도서관

아. 각종 캠페인 및 광고주·유관단체장과의 좌담회 개최

자. 경영인 세미나, 기자연수교육, 강연회 개최

차. 한국전문신문상 및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카. 정기간행물 신규 및 변경등록 대행

타. 전문신문의 이행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사업



유태전 이사장, 종근당 존경받는 병원인상 CEO 부문 수상

병원신문

병원신문(발행인 이성규)이 지난 4월 16일 '병원신문 창간 39주년 기념식 및 제15회 종근당 존경받는 병원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성규 대한병원협회 회장 겸 병원신문 발행인은 인사말을 통해 “병원신문은 1986년 창간 이래 병원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보건의료계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며, 의료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좁히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보건의료계에서 병원신문이 차지하는 무게와 책임은 결코 작지 않으며, 무엇보다 병원신문은 늘 ‘현장 중심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노력했다”며 “의료인, 병원 관계자, 환자 모두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깊이 있는 분석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독자들과 소통해 온 것은 병원신문의 가장 큰 자산이라 할 수 있으며, 올바른 정보 제공과 여론 형성을 통해 보건의료계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중심에 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성규 발행인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환자안전과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소임을 다하고 계신 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도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더욱 신뢰받는 보건의료 전문지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박상근 병원협회 명예회장의 건배사로 1부 행사를 마무리하고 만찬 후 이어진 종근당 존경받는 병원인상 시상식에서 이화성 병협 부회장 겸 병원신문 편집인(가톨릭대 중앙의료원장)의 수상자 선정 경과보고

가 있었다. 이어 이성규 발행인과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가 함께 시상식을 진행했다.

먼저 병원인부문 수상자인 김암 의정부을지대병원 의무원장과 박현미 가천대 길병원 기획조정실장, 신동욱 구미차병원 기획실장, 이진섭 세브란스병원 경영지원팀장, 서영권 청주 효성병원 임상지원부 이사에 대한 시상식에서 CEO부문 유태전 인봉의료재단 이사장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병원인부문 수상자들에게는 3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CEO부문 수상자에게는 2,0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전달됐다.

‘약사의 미래를 보다’…배울거리 가득 ‘서울팜엑스포 성황’

약사공론

대한약사회 약사공론(발행인 권영희)이 주최하고, 서울지부 산하 9개 분회가 주관한 ‘2025 서울 학술제 및 43회 팜엑스포’가 지난 25일 마곡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약국 경영 활성화와 약사 직능의 발전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꾸려졌다. 서울지부 영등포, 서대문, 강서, 마포, 은평, 종로, 도봉·강북, 관악, 양천 등 총 9개 분회가 함께했으며, 분회별로 마련된 다양한 학술 강의와 전시 부스에는 약사들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졌다.

팜엑스포 세미나에서는 약국세무 중점관리사항과 약국개설 운영을 위한 임대차 권리금 분양 계약의 기초, 약료 전문가를 위한 임상검사, 당뇨병과 비만치료제 등 흥미로운 강의



가 마련됐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는 총 46개 업체가 참여해 84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약국 관련 제품을 시작으로 약국관리, 경영 및 세무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였다.

먼저 이번 행사에서는 약국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과 제품들이 대거 등장했다. 이와 함께 초고령화 시대 여러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들의 안전한 약물 복용·관리를 위한 약사의 약료행위와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도 마련됐다.

서울지부가 주최한 ‘초고령화 사회 약료의 미래와 발전방향 정책심포지엄’에서는 ‘다제약물관리 모형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공공약료 구축과 지속 가능한 정책 연계 전략이 제안됐다.

참석자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변화하는 약업 환경 속에서 약사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회원사 개편

2025년 이렇게 새로워집니다

한국기독교공보

한국기독교공보(사장 안홍철)가 2025년을 맞아 독자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통찰을 제공할 다양한 연재와 기획을 전달하고 있다.

△한국선교 140주년 기획 ‘언더우드의 유산’=올해는 한국선교 1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이를 기념해 한국기독교공보는 한국 장로교회의 첫 선교사였던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가 남긴 영적 유산과 오늘날 한국교회의 방향성을 탐구하고 있다.

특히 그의 어록과 업적을 소개하며, 교회의 선교 정신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언더우드의 어록은 14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담고 있다. 언더우드가 보여준 헌신과 비전, 그리고 그의 어록 속 메시지가 독자들에게 큰 영적 도전을 줄 것이다.

△건강한 노화를 위한 지침 ‘인생 오후의 처방전’=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한 노화’가 더 중요한 시대가 다가왔다. 웰케어 클리닉 김경철 원장이 집필하는 새 연재는 생명과 건강에 대한 성경적 통찰을 바탕으로 건강한 노화를 위한 비결을 제시한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는 말씀처럼, 건강한 노화는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조화로 이뤄진다. 이번 칼럼은 독자들이 100세 시대를 맞아 진정한 웰빙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지침서가

될 것이다.

△생명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연재 ‘생명마당’=생명의 본질과 소중함을 재발견하는 연재를 시작한다. 교회의 역할, 성도들의 책임, 자살 예방과 생명 돌봄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며, 생명을 경시하는 오늘날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탐구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교회 건축의 성공적인 가이드 ‘교회 건축 이렇게’=교회 건축의 전 과정을 다루며, 타당성 조사부터 설계, 시공, 완공 후 관리까지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지난 20여 년간 교회 건축 CM(건설사업관리) 분야에서 100여 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 박상기 장로가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갈등을 예방하고, 성공적인 건축 방향을 제시한다.

△권평 교수의 ‘아하! 교회사’=교회사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정체성을 형성해 온 살아있는 역사의 흐름이다. 권평 교수는 교회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통찰을 제공하며,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교회의 역사를 흥미로운 이야기와 실용적 교훈으로 풀어낼 예정이다.

△새 연재 ‘이 찬송을 아십니까?’=찬송은 복음에 대한 응답이자,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 중 하나이다. 한국 찬송가개발원장 문성모 목사가 집필하는 새 연재 ‘이 찬송을 아십니까?’는 찬송가의 역사, 배경, 의미를 깊이 있게 조명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찬송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등·울동·수필 등 3개 공모전 시상식 개최

밀교신문

밀교신문(발행인 능원 정사)을 발행하는 대한불교 진각종이 지난 5월 12일 진각문화전승원 로비에서 ‘2025 월간 법의향기 수필공모전, 제4회 등 경연대회, 제5회 진각연회 울동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통리원장 능원 정사는 월간 법의향기 수필 공모전의 최우수상 수상자인 진선여고 한성덕

(덕성) 교사를 비롯해 각 교구 종무국장에게 3개 공모전의 입상자를 대신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번 등 경연대회에는 65작품, 진각연회울동 공모전에는 22작품, 수필 공모전에는 43작품이 공모됐다.

올해 처음 진행된 월간 법의향기 수필 공모전에는 성인부문 최우수상에 ‘사과나무를 심으면서(한성덕·진선여고)’가, 우수상에 ‘불공공덕, 빙빙돌아서 오다(한명필·아축심인당)’, ‘폭풍과 바다(한지혜)’, ‘너 입 무거워?(이

지원·세종여고)’ 등 3편이, 장려상에는 ‘삶을 회복하는 길(안건호·영신심인당)’, ‘숲에게 길을 묻다(김용태·선륜심인당)’, ‘그 손길이 닿는 순간(이명숙·범석심인당)’ 등 3편이 각각 수상했으며, ‘이른 아침의 출근길(손성삼·안산심인당)’ 등 12편이 입선에 이름을 올렸다.

또 청소년 부문 장려상에는 ‘나에게 우산이 되어준 사람(이수연·진선여중)’이, 입선에 ‘생(마혜민·진선여고)’, ‘겨울의 이별, 그리고 다시 시작



(최윤서·장위중)’이 각각 수상했으며, 자성동이 부문 장려상에는 ‘심인당과 나, 그리고 가족(유지호·탐주심인당)’이 수상했다.

‘제4회 등 경연대회’에서는 창작등 부문 우수상에 ‘풍차속의 세상(김지현·영신심인당)’이, 비창작등 부문 우

수상에 ‘반딧불의 꿈(선혜정·희락심인당)’, ‘가을(각행훈·영신심인당)’ 등 2작품이 수상했으며, 이밖에도 장려 10작품, 입선 22작품 등에 대해 시상했다. 또한 서울 연등회 행렬등 제작 봉사에 동참한 탐주심인당에는 공로상이 주어졌다.

의약학계 오피니언 리더 6명 새로 탄생

의학신문

의학신문(발행인 박연준)은 지난 6월 17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금년도 의약평론가 6명을 추천하고, '제48회 의약평론가 기장수여식'을 개최했다.

의약평론가는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균형 잡힌 사고와 남다른 소통 역량을 높여 사고 있는 의약학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이다. 본사는 1976년부터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춘 의약인들이 언론 기고나 정책적인 제언과 같은 비평적 활동에 보다 적극 나서도록 1976년부터 '의약평론'가 추천 사업을 추천해오고 있다. 사업은 JW중외제약이 후원하고 있다.

올해 '의약평론가 기장수여식'에서는 △구성욱 연세의료원 신경외과 교수 △한건영 청담고운세상피부과의원 원장 △유인상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뉴고려병원 의료원장 △최주현 눈에 미소안과의원 원장 등 4명이 의약품평론가로 △이상구 서울대학교 약대



교수 △한균희 연세대학교 약대 교수 등 2명(가나다순)이 약사평론가로 선정돼 평론가증서와 추천패를 받았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새로운 의사, 약사평론가에게 평론가 증서와 추천패를 수여하고, 의약학계에서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신임 의약품평론가들에겐 후원사인 JW중외제약에서 기념메달을 증정했다.

박연준 의학신문 회장은 인사말에서 "의학신문은 의약학계의 참다운 발전을 이끄는 데 필요한 여론을 주도할 리더를 발굴하기 위해 '의사, 약사평론가' 추천 제도를 만들었다"고 밝

히며, "그동안 역대 의약평론가로 추천된 분들은 학문의 경계를 넘어 의료와 약학계 발전에 필요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확산시키고, 사회와도 적극 소통하면서 의약 전문분야의 지평을 넓히는데 앞장서 국민적 신뢰와 존중을 받고 있다"고 사업의 의의와 보람을 강조했다.

박연준 회장은 "새롭게 의약품평론가로 추천된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섯분 모두 의약학계가 더욱 건강하게 발전해 나가도록 전문영역에서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보다 많은 기여와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AI, 경영의 기초이자 생존 조건”

이뉴스투데이

이뉴스투데이(발행인 방재홍)가 지난 6월 1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페럼타워에서 '격랑 속 글로벌 경제 기업 AI-마케팅 전략도 변한다'를 주제로 창간 20주년 기념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업들이 직면한 사회적 이슈들과 문제들을 톺아보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핵심 전략들과 경쟁력 고취 방안을 공유했다. 콘퍼런스 개막에 앞서 방두철 이뉴스투데이 대표이사는 환영사를 통해 "기술은 진화하고 오늘날 변화는 너무나 빠르게 가고있지만 본질을 꿰뚫는 시선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어떤 혁신



도 방향성을 잃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생각하는 AI는 이제는 단순한 기술의 도구는 아닌 것 같다. 경영의 기초이자 생존의 조건, 그리고 혁신의 촉매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또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도 정답은 아니겠지만 단순히 제품을 PR

하거나 홍보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가치를 설계하는 일이 아닐까 싶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정보 교류의 자리는 아니다. 우리는 오늘 의미를 공유하고 통찰을 전달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찾는 날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번 콘퍼런스에는 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 실장, 김천구 대한상공회의소 SGI연구원 연구위원,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통산연구실 실장, 박희진 마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 등 해당 분야 주요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했다.

‘제4회 전국 중기인 골프대회’ 성료… 중기단체분과, 단체부문 우승 영예

중소기업뉴스

중소기업뉴스(발행인 김기문)을 발행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인의 사기진작과 경영의욕 고취를 위해 개최한 제4회 전국 중소기업인 골프대회' 결선이 지난 5월 29일 충북 음성군 코스카CC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골프대회는 2022년 창립 60주년을 맞아 중기중앙회가 개최한 '중소기업인 아마추어 골프대회' 이후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이번 대회에는 홍석우 전 지경부장관과 김동수 전 공정위원장 및 중기중앙회 정회원 등 216명이 참가했다. 지난 4~5월에 전국 분과(연합회 1개, 전국조합 5개, 중소기업단체 1개)와 지역분과(13개 지역본부)가 자체적으로 예선을 치러 선발된 선수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임경준 대회운영위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했다. 홀깃발 교체행사와 시타식에 이어 본 라운드가 진행됐다. 경기 종목은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구분하고, 경기 방식

은 단체전은 18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개인전은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했다. 라운드 후에는 개인전과 단체전에 대한 시상 순서로 진행됐다. 단체전 1등에 대해 1000만원의 우승 상금이 주어졌으며 다양한 이벤트상도 수여됐다.

이번 골프대회에는 117개 기업과 단체에서 후원금과 다양한 물품을 협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인 골프대회가 중소기업계 활성화와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규회원사



- ◆제호 : 주간조선
- ◆등록번호 : 서울 다 06444
- ◆발행인 : 정장열
- ◆편집인 : 정장열
- ◆회사명 : 조선뉴스프레스
- ◆등록일 : 1968년 10월 20일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34, 13층 조선뉴스프레스
- ◆대표전화 : 02-724-6800
- ◆홈페이지 : <https://weekly.chosun.com/>



- ◆제호 : 영등포시대
- ◆등록번호 : 서울 다 10935
- ◆발행인 : 박강열
- ◆편집인 : 박강열
- ◆회사명 : 영등포시대
- ◆등록일 : 2015년 01월 06일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4길 13, 신아빌라트 106호
- ◆대표전화 : 02-2264-6446
- ◆홈페이지 : <https://www.ydptimes.com/main/main.php>



- ◆제호 : 쿡앤셰프
- ◆등록번호 : 서울 아 55889
- ◆발행인 : 정운천
- ◆편집인 : 김성민
- ◆회사명 : (재)활농
- ◆등록일 : 2017년 10월 11일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9길 26, C동 1413호
- ◆대표전화 : 02-6478-1001
- ◆홈페이지 : <https://cooknchefnews.com/>



- ◆제호 : 디지털전문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4792
- ◆발행인 : 오동수
- ◆편집인 : 오동수
- ◆회사명 : 디에스엔피(주)
- ◆등록일 : 2023년 4월 11일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4, 501호
- ◆대표전화 : 070-7954-8598
- ◆홈페이지 : <https://www.dsnpress.co.kr/>

“전세계 영향 끼치는 언론되길”

기독신문

기독신문(이사장 장재택)은 지난 6월 8일 대구 대명교회에서 문서 방송 선교부흥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장창수 목사 사회, 김경환 장로(기독신문 부이사장) 기도, 시운찬양대 찬양, 장재택 목사 '마라를 만나면'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했다. 장牧사는 "인생을 살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쓴물을 다치게 된 것처럼 갑작스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면서 "이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좇아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독신문은 신문사의 역사와 비전을 소개하고 신문사를 위한 후원과 기도를 당부했다. 대명교회는 기독신문에 후원금금을 전달하고 후

원약정서 작성에 동참하며 신문사 발전을 위해 동역할 것을 약속했다. 기독신문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문서방송선교교회입니다"는 내용이 든 헌관을 증정하며 감사를 표했다.

태준호 기독신문 사장은 "장창수 목사님이 기독신문 주필에 부임하신 이후 신문의 품격이 높아졌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면서 "장 목사님이 총회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말했다.

장창수 목사는 "기독신문은 교단의 대표언론으로 교단과 한국교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면서 "최근 유튜브 방송이 더해져 전세계까지 좋은 소식을 널리 전하고 있는데 기독신문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에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약업신문 창간 71주년 기획] 행복한 팜 스터디

“약국 경영 활성화 핵심 노하우 전수”

약국 경영 활성화를 위한 강의에 약업계 리더와 전문가들이 뭉쳤다.

창간 71주년을 맞은 한국 약업계 최초의 전문지 '약업신문'은 조상일 전 인천시약사회장과 김명철 박사, 이준 약사와 함께 '행복한 팜 스터디'를 마련했다. 본 강의는 지난 5월 25일 개강했다.

지난해 약국이 최대 베스트셀러인 '복약상담을 위한 다빈도약국약물 가이드북'의 저자 김명철 박사와 스타 강사인 이준 약사가 약국 경영 활성화를 위한 핵심 노하우를 전수하고, 조 전 회장이 '학장' 개념으로 전체 강의를 총괄한다.

이번 강의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약국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환자 상담 기술과 질환별 이해도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행복한 팜스터디'는 오랜 강의 경력을 가진 이준 약사와 김명철 약학박사가 참여한 실전형 교육 콘텐츠다. 총 40개 주요 질환을 중심으로 구성된 강의는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실용한방 등 폭넓은 내용을 아우르며, 바쁜 약사들의 수강 환경을 고려해 한 강의당 약 50분 분량을 25분짜리 영상 2편으로 나눠 제공한다.

1차 강의 20편은 지난 5월 23일 오전 공개됐으며, 2차 강의 20편은 오는 7월 1일 업로드 예정이다. 수강자는 오는 9월 23일까지 총 4개월간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다.

조상일 행복한 팜스터디 학장(인천광역시약사회 총회의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질환별 임상 지식을 총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공부하면, 업그레이드된 환자 상담을 통해 약국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을 확인한다”며 “강의 책자는 수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는 좋은 임상 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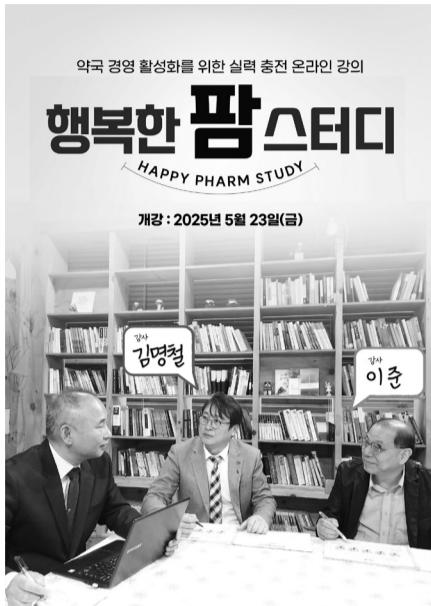
이어 “요즘 약국 경기가 좋지 않아 많은 약사들이 고민이 많다”며 “해답은 결국 약사의 실력을 높여 수준 높은 환자 상담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이준, 김명철 두 명강사와 함께 질환별 A부터 Z까지 총망라한 이번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게 된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행복한 팜스터디'는 단순한 콘텐츠 제공에 그치지 않고, 수강자를 위한 다양한 실질적 혜택도 마련했다.

총 650페이지 분량의 강의 자료집 2권은 향후에도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전 매뉴얼로 구성됐으며, 필기구 세트와 동국제약의 약국 전용 화장품도 함께 제공된다. 또 일부 수강자에게는 약사가운이 증정되며,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강사와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나눌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된다.

특히 오는 9월 27일에는 수강생 전원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스페셜 강의도 예정돼 있다. 수강생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한 주제를 중심으로, 두 강사가 직접 강의에 나서는 자리로 마련돼 교육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강의는 지난 21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아 마감됐으며, 수강 신청자들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로그인 후 강의를 시청할 수 있다. 모바일과 PC 모두 지원된다.

조 학장은 “이번 ‘행복한 팜스터디’가 약사들의 실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환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상담 능력이 곧 약국의 경쟁력이고, 이 프로그램이 그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명철 박사, 이준 약사와 만나 ‘행복한 팜 스터디’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Q. ‘행복한 팜스터디’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김 : 현재 약국 불경기가 심한 데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있어서도 마트 등 외부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약국과 약사가 차별화를 두려면 복약상담 등에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환자에게 병이나 약물 기전을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설명하면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고, 특히 약사회 연수교육 외 이런 강의를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참여하게 됐다.

이 : 강의를 많이 하고도 있지만, 강의를 많이 듣기도 한다. 그렇게 많은 강의를 듣다 보면 안 좋은 강의들도 많은 게 사실인데, 김명철 박사 강의는 정말 좋았다. 진짜 마음에 드는 강의였는데 그런 강의를 하시는 분이 제게 같이 하라고 하니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웃음)

Q. 강의를 꼭 들었으면 하는, 가장 추천하는 대상은.

김 : 첫 번째는 약학대학을 막 졸업한 약사다. 학교에서 배운 걸 응용할 때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인 바탕이 필요한데, 그 바탕을 ‘행복한 팜 스터디’ 강의에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래 약국을 운영하신 분들이다. 이런 분들은 기존에 취급하는 약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다.

이 : 내과(내분비쪽) 근처 약국 약사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혈압-당뇨-콜레스테롤이 있는 환자들은 본인이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분들께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고, 더 잘 알게 할 수 있도록 관련 부분을 이번 강의에서 많이 집중해서 다뤘다.

[약업신문 창간 71주년 특집]

신약개발 숨은 주역 CRO... 제약바이오 산업 핵심 파트너 부상

글로벌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CRO(임상시험 수탁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제 CRO의 역할이 신약 개발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됐다. 국내 CRO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CRO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신속히

구축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CRO는 더 이상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다.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 동력임을 인식해야 할 때다.

한국이 글로벌 임상시험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KoNECT)이 발간한 ‘한국임상시험백서 2024’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 전 세계 임상시험 수행 국가 순위에서 역대 최고인 4위를 기록했다. 서울은 7년 연속 도시별 임상시험 수행 점유율 1위를 유지하며 아시아 임상시험의 중심지로 입지를 굳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임상시험 건수가 5.48%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오히려 9.03% 증가했다. 글로벌 제약사의 주요 임상시험 허브로서의 매력을 입증한 것이다.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숨은 조력자인 CRO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CRO는 신약 및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비임상시험부터 임상시험 기획, 운영, 데이터 분석 등 제약바이오 산업 전반의 업무를 지원하며, 기업과 병원, 연구소, 규제 기관과의 가교 역할을 한다. 제약바이오 산업의 필수적인 파트너인 셈이다. 신약이 시장에 출시되기까지 평균 10~15년이 걸리며, 전체 비용의 60% 이상이 임상시험 단계에서 발생한다. 비임상 단계까지 포함하면 90%를 육박한다.

글로벌 제약산업의 연구개발(R&D) 비용은 2023년 3010억 달러에 달했으며, 2030년에는 3660억 달러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CRO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임상 및 비임상 시험의 속도를 높이고, 규제 준수를 지원하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는 78곳의 CRO가 운영 중이다. 이 중 64곳이 임상 CRO로 직접적인 임상시험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 검체 분석기관이 11곳, 비임상 CRO 및 생동 CRO가 각 7곳, 데이터 분석 등 기타 CRO가 11곳으로 구성돼 있다. 보다 세부적인 CRO까지 포함하면 150여곳을 훌쩍 넘는다.

CRO 형태로는 내자 CRO 58곳, 외자 CRO 20곳으로 나타났다. 국내 CRO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9801억원에 달하며, 다국적 제약사의 한국 내 임상시험 증가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외자 CRO의 매출은 2021년부터 증가한 반면, 내자 CRO의 매출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 CRO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의약품 허가뿐 아니라 상업화 전후 적응증 확대, 용도 변경, 기전 탐색을 위한 임



상시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기업의 임상시험 단계별 수행 비중은 1상이 4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2상이 21.0%, 3상이 11.6% 순이다.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22.0%)과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16.5%)은 주로 일반 제약사에서 수행했다. 반면 바이오벤처들은 1상 임상시험(56.6%)과 2상 임상시험(26.8%)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연매출 3000억원 이상의 대형 제약사는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이 전체 임상시험의 34.7%를 차지했다.

정부는 2022년 바이오·디지털헬스산업을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2023년 ‘제3차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임상시험 글로벌 3위 달성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CRO 산업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임상시험 전주기 전문가 양성, 지역 임상시험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2023년 12월에는 ‘임상시험 전자 동의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발표했다. 2024년 4월에는 지역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참여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그러나 국내 CRO 산업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적지 않다. 우선 내자 CRO의 매출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의 활성화가 부족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내 CRO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기업과 해외 CRO 간의 협력 모델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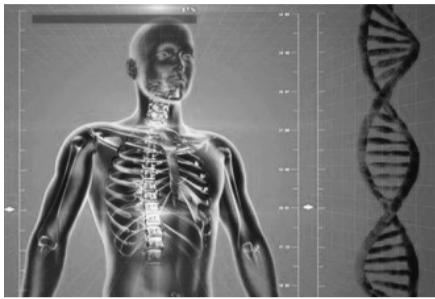
한국 CRO와 임상시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임상시험 대상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재 국내 임상시험은 서울과 수도권 주요 병원에 집중돼 있어 지방 환자들의 참여 기회가 제한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 4월 지역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점을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글로벌 트렌드인 분산형 임상시험(Decentralized Clinical Trials, DCT) 도입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분산형 임상시험은 원격 모니터링, 비대면 진료, 환자 자택 배송 시스템 등을 활용해 환자가 병원 방문 없이도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규제 문제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임상CRO협회 지준환 회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지금, CRO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면서 “기업과 CRO가 힘을 모아 연구개발을 혁신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해야 진정한 제약바이오 강국, CRO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보건신문 창간 59주년 특별기획] 지속가능한 보건산업 성장전략

미래 신산업 주도할 유망기술 개발에 초점



바이오헬스 산업은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와 건강수요 증가에 따라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주력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세계 각 국가별로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으로,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의 전략적 투자 강화를 추진 중이며 특히 연구개발 혁신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현재 인공지능(AI)과의 융합, 혁신적인 유전자편집 기술의 임상 적용, mRNA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 다양한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난치병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의료와 산업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첨단바이오기술은 국가 전략기술로서 국민 건강과 산업 경쟁력에 기여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AI 기술은 신약 개발과 유전체 빅데이터 분석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현미경 이미지나 의료 영상에서 세포와 조직의 변화를 자동으로 판별해 진단에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파운데이션 AI 모델을 기반으로 한 AI 세포, AI 유전체, AI 비임상 플랫폼과 같은 디지털 트윈을 이용한 다양한 바이오 현상-기전연구, 바이오 시스템 예측 및 시뮬레이션, 바이오 분자 설계와 같은 혁신적 연구에 AI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AI 기술을 접목하면 인간의 직관에만 의존하던 연구에 데이터 기반의 정밀성과 속도를 부여해 혁신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또 유전자편집 기술은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mRNA 기술은 백신뿐만 아니라 항암치료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적용되며 큰 주목을 받고 있

다. 고령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노화 연구, 정밀의료,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등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공지능과 ICBM 기반의 데이터 활용기술의 발전은 보건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비용절감, 고부가가치 등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 데이터-네트워크를 활용한 디지털 기술군을 포함해 기존의 의료제품, 의료서비스 구분에서 나아가 바이오 빅데이터, 인공지능, 정밀의료, 재생의료 등 양자가 융합된 새로운 차원의 치료개념 등장으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1월에 개최된 세계 최대의 가전·IT 박람회인 CES 2025에서는 ‘Connect. Solve. Discover. Dive In’이라는 주제로 ‘예측형 헬스케어’와 ‘디지털 헬스’ 기술이 주요 혁신 분야로 주목받으며, 최첨단 기술을 통한 의료와 웰니스 산업의 변화를 선보였다. 개인 건강관리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헬스 트래커, AI 활용 맞춤형 웰니스 솔루션, 가상현실을 이용한 정신건강 관련 기기들과 인간이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수 기술 등이 전시돼 큰 주목을 끌었다.

의료와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화된 건강 관리’가 핵심 트렌드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기술은 원격 의료 서비스 분야의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와 멀티오믹스 기술 역시 의료 서비스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세계 의료·생명과학 부문의 핵심 트렌드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별 환자의 요구에 맞춘 ‘개인화된 건강 관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인화된 건강 관리에는 정밀 의학 분야와 더불어 개인의 생활 방식, 유전적 구성 및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는 포괄적인 건강 관리 시스템이 포함된다. 이러한 개인 맞춤 의학 시장은 유전체학과 생명공학의 발전에 힘입어 2025년까지 약 31억8000만달러(약 4조2500억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의료종사자들은 AI 기반 도구를 사용하

[보건신문 창간 59주년 발행인 기념사]

흔들림 없는 정론의 길, 미래 향한 새로운 도전



유태우 발행인

보건신문이 창간 59주년을 맞았습니다.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묵묵히 국민 건강과 보건의약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치우치지 않는 시선으로 사실을

전하고자 했던 지난 59년의 여정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59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안겨줍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 만성질환 증가, 팬데믹 이후 건강 관리의 중요성 부각, 그리고 눈부시게 발전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까지. 보건의료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보건신문은 단순히 소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며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보건의료계의 다양한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회복하기 위한 환자 스스로의 노력을 도와주는 의료정책도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는 ‘치료’ 중심의 전통 의료 시스템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의 다양한 건강 수요에 응답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에 주목하려 합니다. 바로 보완대체의료 분야입니다. 대체의료는 질병의 예방이나 미병 상태에서의 건강 관리에 초점을 맞추거나, 기존 현대 서양 의학이 제공하기 어려운 영역을 채워주는 등 긍정적인 가능성을 가지

고 있습니다. 모든 질환이나 증상이 현대 의학적 치료만으로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만성 통증, 스트레스 관련 질환, 암 치료의 부작용 관리 등에서 보완대체의료가 환자의 증상 완화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보완대체의료는 현대 의료 시스템에서 중요한 대안 또는 보조적인 역할로 인식되며, 환자들에게 더 넓은 선택의 폭과 맞춤형 건강 관리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서금요법, 자연요법 등 대체의료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환자들의 선택지를 넓히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약화돼 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정부 차원의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먹물 안전성, 식품첨가물이나 인공환경호르몬, 유해전자파, 무분별한 많은 운동요법들도 정책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신문도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정통의료와 보완대체의료가 어떻게 상호 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건강한 논의를 촉발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신뢰와 지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신문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정론의 길을 걸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국민 여러분과 보건의약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미래를 향한 우리의 새로운 도전에 따뜻한 격려와 따스한 충고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재적인 건강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조기 개입형 치료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반응에 기반한 의료

에서 예방적 의료로의 전환은 진행성 질환 치료에 대한 비용을 크게 절감시켜 소비자들의 의료 관련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 물질 찾고 임상까지...신약개발 패러다임 전환

인공지능(AI)이 신약개발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신약개발 과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AI 기술이 신약 개발 과정에 도입되면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는 양상이다.

신약 개발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 낮은 성공 확률로 인해 매우 어려운 과제다. 보통 10년 이상의 시간과 1조 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되지만 성공 확률은 극히 낮은 수준이다. AI는 복잡한 바이오 데이터에서 핵심 정보를 뽑아내고 새로운 약물 후보 물질을 디자인하거나 예측하는 등 신약 개발의 전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다.

후보물질 발굴 단계에서는 방대한 양의 생물학적, 화학적 데이터를 분석하여 질병의 원인이 되는 타겟 단백질을 식별하고, 이에 결합할 가능성이 높은 화합물을 예측하는 데 사용된다. 비임상 및 임상 연구 단계에서는 약물의 효능과

독성을 예측하거나, 임상 시험 대상자를 선정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또한, 시판 후 안전 관리나 첨단 의약품 제조 단계에서도 AI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예측하는 AI 시스템인 ‘알파폴드(AlphaFold)’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은 신약 개발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주목받고 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생물학적 데이터를 딥러닝 기반으로 학습한 알파폴드는 실험적 방법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단백질 구조를 예측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약 개발 초기 단계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제이웨이브의 ‘주얼리’와 ‘클로버’ 같은 빅데이터 기반 약물 탐색 시스템 또한 AI 모델 적용 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

AI 활용은 신약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AI 모델이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빠르게 찾아내고 예측 정확도를 높임으로써, 연구 실패 확률을 낮추고 연구 기간을 단축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2016년부터는 AI 신약 개발 스타트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국내에서도 AI 신약 개발 지원센터 등을 통해 관련 연구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AI는 신약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되며, 과거에는 불가능했거나 매우 어려웠던 작업들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다만 AI가 만능이 아닌만큼 여전히 많은 연구와 검증이 필요하지만, 신약 개발 패러다임을 바꾸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판단이다. AI 기반 신약 개발은 밝은 미래를 제시하지만,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남아있다. AI 기술 발전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윤리적 문제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다차원적인 정책 및 규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AI가 신약 개발 분야에 가져올 혁신은 분명하다.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신약 개발을 통해 미충족 의료 수요를 해결하고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AI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AI가 신약 개발의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창간 54주년 특별기획]

트럼프發 시장재편 움직임에 해운물류조선산업 요동



2025년 상반기 해운물류조선시장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러온 시장 질서 재편 움직임에 들쭉날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출범 이후 강력한 중국 제재 정책을 펴고 있다. 대중 제재의 신호탄을 알린 건 지난해 12월19일 미국 연방상선사관학교(Kings Point) 출신인 마크 켈리 상원의원(민주당)이 주 도해 발의한 '미국의 번영과 안전을 위한 2024년 선박건조·항만 인프라법'(선박법)이다. 이 법은 미국 해운을 재건하고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10년 안에 미국 국적의 전략상선대 250척을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80척에 불과한 미국적 상선대를 재건하는 게 이 법의 목표다.

미국적선은 미국에서 건조돼 미국 깃발을 달고 미국 선원이 승선하는 선박을 의미한다. 미국 정부는 250척의 국적선을 한꺼번에 도입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2029년까지 외국에서 지어진 선박을 전략상선대로 허용하는 임시선박(interim vessel)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우려 국가에서 건조됐거나 소유 운항하는 배는 임시선박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중 관세전쟁 유예로 깜짝 수요 출현

그런가 하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월 중국과 관련된 선박에 막대한 입항 수수료를 징수하는 규제를 제안했다. 당초 입항세 규제는 △중국산 선박이 미국에 들어올 때 한 항구마다 150만달러를 받고 △중국 해운사가 운항하는 선박 또는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 비율이 50% 이상인 해운사가 운항하는 선박 또는 △중국에 발주한 신조선 비율이 50% 이상인 해운사가 운항하는 선박은 한 항구당 100만달러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초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4월과 5월 2차례의 공청회를 거치면서 오는 10월14일부터 △중국 해운사가 운항하는 선박은 1t(순톤)당 50달러 △비중국 해운사가 운항하는 중국산 선박은 1t당 18달러 또는 20피트 컨테이너(TEU)당 120달러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폭 후퇴했다. 아울러 부과 횟수도 연간 5회로 제한된다.

USTR은 입항세 부과 금액을 2028년까지 매해 4월17일마다 각각 30달러 5달러씩 인상할 예정이다. 3년 후인 2028년 4월17일 부과되는 입항세는 △중국 해운사가 운항하는 선박은 1t당 140달러 △비중국 해운사가 운항하는 중국산 선박은 1t당 33달러 또는 TEU당 250달러로 증액된다.

미국은 이와 별도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추가 관세를 도입하는 정책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제재의 초점인 중국에 최대 145%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 미국산 상품에 125%의 보복관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행히 양국은 5월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상호 관세 부

과 조치를 90일간 유예하는 데 합의하고 관세율도 크게 낮췄다. 미국은 145%에서 30%, 중국은 125%에서 10%로 각각 완화했다.

이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해운시장에선 미국의 대중 제재가 시행되기 전에 화물을 수송하려는 '밀어내기 수요'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미국 무역 정보 회사인 데카르트데이터마인에 따르면 올해 1~4월 아시아 10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컨테이너 물동량은 10% 늘어난 678만TEU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발 해운 호황기였던 2022년 같은 기간의 693만TEU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높은 수치다. 그 결과 공급 과잉으로 운임이 폭락할 거란 전망과 달리 컨테이너선 시장은 비교적 연착륙하는 모습을 띠면서 해운사들도 안정적인 실적을 받아들었다.

올해 벌크선 시장은 해운업계 큰손인 중국이 원자재 수입을 줄이면서 하락세를 띠고 있다. 중국 세관에 따르면 올해 1~4월 중국의 철광석 수입량은 3억8836만t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의 4억1182만t에서 6% 감소했다. 이 밖에 석탄은 5% 감소한 1억5267만t, 곡물은 40% 감소한 3182만t, 대두는 15% 감소한 2319만t에 그쳤다. 수요 감소를 배경으로 1~5월 평균 벌크선운임지수(BDI)는 지난해 1819에서 올해 1204로 34% 하락했다. 벌크선 전 선형에서 시황 부진이 나타났다.

같은 기간 케이프사이즈 운임지수(BCI)는 지난해 2798에서 올해 1688로 40% 떨어졌고 파나마크스 운임지수(BPI)와 수프라맥스 운임지수(BSI)는 각각 34% 하락한 1159, 31% 하락한 872에 머물렀다. 비록 5개월치이긴 하지만 BSI 평균이 1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진 건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컨테이너 운임도 두 자릿수의 하락 폭을 보였다. 상하이해운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5개월 평균 글로벌 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1620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95.2에 견줘 23% 내렸다.

상하이-미국 서안항로 평균 운임은 40피트 컨테이너(FEU) 기준으로 지난해 4159달러에서 올해 2947달러로 29% 떨어졌고 미 동안항로 평균 운임도 지난해 5505달러에서 올해 4127달러로 25% 하락했다. 북유럽항로 평균 운임은 20피트 컨테이너(TEU)당 지난해 2569달러에서 올해 1602달러로 38%, 지중해항로 평균 운임은 지난해 3550달러에서 올해 2548달러로 28% 각각 인하됐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이나 이전 시기인 2019년에 비하면 높은 수준을 보였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HMM 견인’ 주요 국적선사 1분기 실적 두 자릿수 개선

국적선사들의 1분기 영업실적은 선종별로 엇

[코리아쉬핑가제트 창간 54주년 발행인 기념사]

뉴미디어 개척으로 해운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할 터



이우근 발행인

가제트가 올해로 창간 54돌을 맞았습니다.

고(故) 이택영 회장이 한국해운 태동기인 1971년 6월1일 창간한 본지는 독자 여러분의 큰 사랑과 성원을 원동력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해운 입국(立國)의 창간 정신을 실현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해운 시장이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땐 출구를 비추는 등불 역할을 하고 호황기를 지날 땐 다가올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올해 들어선 해운시장은 흥해사태를 배경으로 한 호황과 서서히 작별하는 모습입니다. 벌크선운임지수(BDI)와 글로벌 컨테이너선 운임 모두 지난해보다 30% 이상 하락한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도 시황에 중요한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중국은 100%를 웃도는 관세를 주고받으며 무역 전쟁을 본격화하다가 일시 휴전한 상태입니다. G2가 관세율을 대폭 낮추고 부과 시점을 3개월 늦추는 데 적극적으로 합의하면서 해운업계도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 최장수 해운사인 고려해운이 미주 서안 항로에 진출한다는 소식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운산업 합리화 시절 HMM에 미주항로 운항권을 매각하고 근해항로에서 저변을 넓혀온 고려해운은 코로나 기간 동안 확보한 든든한 실탄을 무기로 원양항로 사업을 빠

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아프리카항로에 배를 띄운 데 이어 올해 들어 멕시코항로와 미국 서안 항로에 진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북미항로를 운항하는 국적선사는 HMM과 SM상선에 이어 3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민관이 합심해 해운 통합, IMF 구제금융, 글로벌 금융위기, 한진해운 파산 등의 고난과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해온 한국해운의 저력을 다시금 확인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 밖에 해운사의 담합을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결은 시장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판결로 수십 년간 허용돼 온 컨테이너선사들의 공동행위는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위협하다고 결론 내린 해운사 공동행위가 과기환송심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해운업계가 공정위 관여를 원천 차단하는 법 개정에 나설지 관심이 쏠립니다.

코리아쉬핑가제트는 지난 반세기 동안 기간산업인 무역과 해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오면서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네이버·카카오 같은 포털과 제휴하고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입점하는 등 매체를 다변화하는 데도 앞장섰습니다. 전문 언론 최초로 시작한 유튜브 방송(www.youtube.com/@ksg1971)이 60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대형 채널로 성장한 것도 이런 노력의 결실입니다.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해운물류산업의 대변지 역할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54년을 한결같이 뜨거운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독자와 광고주, 해운물류업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갈린 모습을 보였다. 컨테이너선은 상승 곡선을 그린 반면 벌크선사들은 대부분 부진을 보였다. 탱크선사는 건실한 성장을 신고했다. 영업실적을 발표한 국적선사 10곳은 1분기 동안 매출액 4조3873억원, 영업이익 8192억원, 순이익 8658억원을 합작했다. 매출액은 14%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26%, 순이익은 40% 급증했다.

글로벌 컨선사들 트럼프발 관세 파고에도 선방

올해 1분기 글로벌 컨테이너선사들은 트럼프발 관세 여파와 평균 운임 하락에도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순항했다. 다만 양밍해운을 제외한 선사들이 수익 개선에 성공했다.

현대글로벌비스 대폭 성장 vs 롯데 부진

분기별 실적을 공시하는 국내 주요 2자물류기업 3개사는 올해 1분기 제각각의 실적을 기록했다. 현대글로벌비스와 삼성SDS(물류사업)는 외형 성장을 일군 반면, 최근 코스피 상장에 도전했다가 기업공개(IPO)를 철회한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유독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물류기업 3곳의 1분기 평균 영업이익률은 3.9%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동일했다. 현대글로벌비스의 영업이익률은 1.1%p 오른 6.9%를 기록했

다. 반면 삼성SDS(물류사업), 롯데글로벌로지스는 각각 1%p 0.1%p 떨어진 2.3% 2.4%의 영업이익률을 내는 데 그쳤다.

글로벌 물량 확대에 외형 성장…수익성 전반 감소

국내 주요 항만물류기업 6개사는 올해 1분기에 물동량 회복과 글로벌 사업 호조에 힘입어 외형 성장을 일궜다. 수익성은 6곳 중 4곳이 악화됐으나 기업별로 2곳은 이익 구조를 개선하면서 상반된 실적을 냈다. 6대 항만물류기업의 1분기 평균 영업이익이익률은 3.2%로 전년 동기 대비 0.5%p 후퇴했다.

세계 10대 항만 물동량, '트럼프 효과' 8% 성장

세계 10대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대외 불확실성과 변동성에도 올해 1~3월 동안 플러스 성장을 거뒀다. 특히 상위권에 포진한 중국 항만 6곳의 평균 성장률은 8.9%를 기록, 지난해 (14.5%)보다 둔화됐으나 여전히 건실한 성장을 이어갔다.

10개 항만 모두 플러스 성장을 거뒀다. 우리나라 부산항은 전 세계 항만 물동량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견고한 실적을 냈다.

[시정신문 창간 37주년 발행인 기념사]

국내 유일의 명품 행정전문지로 혼신 다할 터



주동담 발행인

존경하는 독자여러분!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시정신문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낌없는 사랑과 조언을 주신 독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신문은 '국가 이익을 생각하는 신문,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신문, 시민의 이익을 위한 신문'이란 창간정신 아래, 오직 독자여러분과 함께 우리나라 행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시대의 유일한 대변지로서 어느덧 3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작금에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에 따른 오는 6월3일 대통령 선거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벌어지고 있는 전 세계적 관세전쟁 등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시점에 놓여 있으며 정치·안보·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격랑이 일고 있는 등 국가적 위기가기도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변책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민족은 매년 국가적 위기를 맞을 때마

다 이를 돌파해 낸 저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국민은 또 한 번 돌파구를 찾아낼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믿습니다.

작금과 같은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처한 상황을 예리하게 분별하고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하는 일 또한 언론의 사명일 것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저희 시정신문은 투철한 국가관으로 항상 기본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정통언론으로서의 책임과 품위를 중시하며 늘 깨어있는 정론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임직원이 하나 되어 열과 성을 다해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습니다.

현재 미디어 시장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속히 전환하는 과도기에 놓여 있습니다. 신문사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뉴스의 무게중심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지만, 신문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오프라인 역시 소홀하게 다룰 수 없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특히 시정신문은 국내 유일의 행정전문지로서의 강점을 지닌 행정과 지방자치 뉴스의 질과 양을 더욱 향상시키고 시정신문만의 독보적인 행정전문지의 위치를 사수하고 더욱 공

고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언론 본연의 역할에 더 충실하기 위해 아젠다 설정에도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정치·사회·문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점들을 더욱 냉철하게 지적하는 한편, 이에 대한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변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신문은 오직 사회정의에 입각, 어떠한 외압과 시류에도 흔들리지 않는 객관성에 따른 공정정보도와 진영논리에 매몰되지 않는 균형정보도, 그리고 철저한 팩트에 의한 사실정보도의 원칙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시정신문은 항상 정론직필과 불편부당의 자세로 흔들림 없이 저널리즘의 가치를 더욱 소중히 지켜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로 사회의 공기로써의 책임을 다하며 국가발전과 우리민족 대통합에도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 시정신문은 항상 '행정과 지방자치 분야에서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가', '우리는 다른 신문에는 없는 행정과 지방자치의 가치 있는 정보와 뉴스를 독자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가'란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시정신문은 항상 깨어있는 기자정신에 더욱 충실하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기사와 논설, 해설, 칼럼 등으로 퀄리티 저널리즘을 실천, 온라인과 모바일 등에서 수준 높은 정보로 소외된 이웃에 등불을 비춰 언제나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행정과 미래에 꼭 필요한 명품 행정전문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언론의 정도를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시정신문은 정당과 종파를 초월해 국민과 국가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청정 저울처럼 어느 한쪽에도 치우침이 없는 뉴스를 지향하며 특정 프레임에 갇히지 않는 찢기고 갈라진 한국 사회에서 오직 진실에 의한 기사로서 독자들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정론지로서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저희 시정가족은 오직 독자여러분만을 바라보며 민·관의 가교역할과 대한민국 언론의 중심, 지방자치뉴스의 출발점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항상 창간의 초심으로 돌아가 불편부당함과 공정함을 견지해 국내 유일의 행정전문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시정신문을 몰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신문 창간 37주년 기획] 민선 지방자치 30년

대한민국이 또다시 격동의 역사를 지나고 있다

역사책에 박제됐던 계엄이 현실이 되자 최고 결정기구인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파면을 주문했고, 지금 대한민국은 부랴부랴 21대 행정수반을 선출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다.

금년 5월은 본지 37주년 창간일이 있는 뜻깊은 시기로, 올해는 대선 캠페인 한 가운데에 있는 이례적 상황을 맞았다. 예전에 없던 대 행사를 치르고 있지만 2025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영원히 기억될 '완전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되는 경사스러운 해이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의 숨고르기 후 1995년 초여름 대한민국은 역사의 분기점으로 기록될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거행했다. 이로써 대한민국도 버젓한 지방정부를 맞게 된 것이다.

본지는 창간 37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에 지방자치의 중요한 이슈 두가지를 선택해 독자와 함께 숙고하고자 한다.

하나는 본격 지방자치 3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와 또 하나는 공직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공무원 정년 연장'에 대해 살펴보기로 했다.

이번호에서는 지방자치 발전이 곧 국가발전을 견인할 것을 믿는 독자 여러분과 함께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돌아보고, 축하하려 한다.

1995년의 민선 지방자치는 우리 역사속에서 단 한번도 가져본 적 없는 주민들 손에 의한 '지방정부'가 출범한 기념비적인 성과다.

20세기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망명정부를 꾸릴 수 밖에 없었던 가나인 망국의 치욕과 내전의 참혹을 겪었다.

정치적 불안도 오래도록 계속됐다. 권력욕이

개혁을 부르고 개혁이 정치적 혼란을 부르는 악순환 속에서도 경제발전은 지속됐고, 국민들은 필사적으로 교육에 투자, 국민의 높아진 의식수준은 결국 본격적 지방자치가 펼쳐질 수 있는 배경이 됐다. 본격 자치 출범의 의미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룬 '역동 코리아'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필수요소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자신의 대리인을 직접 선출해 행정을 맡기는 제도로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여러곳으로 나누는, 발달된 민주주의 국가의 필수요소로 꼽힌다.

지방자치의 최대 장점은 지역주민의 의사와 요구를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으로, 행정 서비스 속도에서 중앙집권과 지방자치를 비교하는 건 한마디로 년센스다.

중앙의 권한과 재정이 지방에 이양되면 지역 사정에 밝은 지방정부는 세밀한 대응이 가능하고, 각지의 특수한 풍속에 따른 다양한 문화발전과 위기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

중앙집권 정부가 효율성을 이유로 전국적으로 일원화 된 사업을 펼쳐게 되는 일은 일상인데, 중앙정부의 판단이 잘못되면 사업예산이 매몰되는 위험이 지방자치제하에서는 상당 부분 완화된다. 본격 지방자치가 펼쳐진 후로 우리사회는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제일 먼저 찾아온 변화는 관청의 '공기'다.

1995년 이전에 만연했던 공무원들의 고압적인 태도는 이후 빠르게 견혀갔고, 민원처리 속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행정을 '서비스'로 부르는 경향까지 생겼는데, 모두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자치정부 등장 이후의 현상이다.

2019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지방자치의 효용성을 극적으로 체험했다.

지방정부의 헌신적이고 체계적인 움직임은 대한민국이 세계최고의 팬데믹 관리국의 명성을 쌓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이는 국가 경제지표 방어에 큰 도움이 됐다.

지방소멸, 수도권 1극체제 극복해야

지방자치에도 어두운 면이 있다. 차기 공무원 임권을 노리고 당장의 인기정책, 전시행정을 남발하고 토호세력이 중심이 된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은 파탄이 나고 지방자치의 역효과가 발생해 여론의 비난에 직면하게 되는데 다행히 지난 30년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방자치 실시 초기 지방자치 담당자들의 잦은 이탈이 지방자치 무용론의 재료로 쓰이기도 했는데, 집행부 견제 본분을 망각한듯한 지방의원들의 물의가 특히 공격의 대상이 되기

도 했다. '지방자치 무용론'은 비운 뒤 땅이 굳는 자연법칙에 반하며, 대한민국이 천신만고 끝에 쌓은 역사적 성과를 내다 버리자는 퇴행적 주장으로, 큰 반향을 얻지 못하고 사그라져 갔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커다란 과제를 떠안고 있다.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고민은 '지방소멸'에 대비하는 것이다. 농촌형 지자체는 노령화가 빠르게 심화되고 곧 닥쳐올 인구감소로, 지자체로서의 지위를 잃게 될까봐 많은 지자체들이 노심초사하며 이 문제를 응시하고 있는 중이다. 지역 불균형 해소 역시 상위 과제로, 수도권 1극체제와 경부선축 집중발전 극복이 아직까지 뾰족한 해답이 없는 상태다.

분권형 개혁이 지방자치 발전 해답

지방자치의 밝은 미래는 '개혁'과 깊은 상관관계에 놓여 있다.

헌법 전문 100조 뒤로 쳐져 있는 지방자치 조항 내용을 보완하고 전면에서 끌어 올리는 개혁이 이뤄지면 지방자치의 비약적 발전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하위법 제정의 문호가 열리고 2할자치의 자조를 잠재울 수 있는 세법 조정 열쇠도 개혁이 쥐고 있는 셈이다.

대한민국의 주요 정치세력들이 분권형 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동안 여러 경로로 확인된 바 있다. 1987년의 6공화국 헌법체계가 시간이 갈수록 변화된 현실에 뒤떨어져 해진 의복처럼 낡고 불편해진 걸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경험적으로 개혁이 어려운 것은 개혁을 먼저 공론화 시키는 편을 카운터파트에서 정국 주도권을 쥐려고 한다는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아 현재까지도 실질적 개혁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30년 본격 지방자치의 도약은 손에 잡힐 듯 눈앞에 있지만 정치권의 개혁 협상이 먼저다.

기획 주간전문신문 Focus In 2025 경영인 세미나 종합토론

전문신문 생존의 방향성, 디지털 혁신 넘어 인공지능 혁신으로 도모해야

협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를 움직이기 위한 노력 필요

◇ 주제 발표 ◇

- AI를 활용한 전문신문의 혁신 전략(전창영 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원)
- 디지털·AI 전환기, 전문신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과제(천현진 순천대 교수,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

◇ 참석 및 토론자 ◇

가스신문 양영근 발행인, 내외뉴스통신 김광탁 발행인, 농촌여성신문 전우승 상무, 데일리환경 안상석 발행인, 메디칼업저버 김관홍 발행인, 식품저널 강대일 발행인, 약업신문 함용현 회장, 원예산업신문 박두환 발행인, 의학신문 박준준 발행인, 일요뷰티저널 그레이스 현 발행인, 일요저널 오경섭 발행인, 장업신문 김중규 대표, 한국식약경제신문 김관현 발행인, 한국임업신문 김종철 발행인, 한국전문신문협회 김시중 고문, 한국전문신문협회 조창희 고문, 한국해운신문 이철원 발행인, 환경타임즈 유철 발행인 <매체 가나다순>

◇ 종합토론 ◇

1. 전체적으로 전문신문 시장은 수익 다변화가 미비하며 정부 정책 대상에서 배제돼 사장 자립에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 대책은?

- 전문신문 대부분이 10명 미만으로 영세 운영되고 있으며, 이마저 구독자 감소와 급격한 광고수익 감소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신문 평균 업력이 20년 이상이지만 여전히 정부정책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시장 자립에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문신문 진흥법제를 마련해 기본적으로 경비 보조, 금융지원, 세제지원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이는 정부지원자금으로 볼 수 있는 연간 480억 상당의 언론진흥기금에서 전문신문분야에 투입되는 비중이 얼마인가를 살펴보면 된다. 아주 미비하거나 보이지 않는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전문신문에 대한 정의와

분류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법과 정책의 사각지대를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전문신문 특성을 살려 전문지역 분야 정책 콘텐츠 발굴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유가 구독자 확보와 함께 광고시장 개척도 보다 용이하게 될 것이다.

2. 전문신문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 생존을 위해서는 재정적 기반 확보가 필수이다. 발제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전문신문이 정부의 지원정책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재정적으로 생존기반의 취약성을 벗어나야 한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전문신문 생존의 방향성이다. 이미 우리는 chat GPT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 신뢰받고 가치 있는 콘텐츠 발굴이 요청되는 시대를 맞고 있다. 이제 전문신문을 포함한 미디어업계도 디지털 혁신(digital transformation)을 넘어 인공지능 혁신(AI transformation)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 협회장 인사말

전문신문이 발전할 수 있는 전략적 계기 마련

김광탁 회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정기총회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만나 뵙니다. 정치적 격동기를 맞이하여 업무에 몹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서 '2025 전문신문 경영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우리 전문신문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성찰을 통해 미래 100년의 생존전략을 함께 찾아보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현재 전문신문을 비롯한 언론산업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도입과 전통적인 수익모델의 악화로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콘텐츠 제작과 배포과정에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독자 이탈과 광고수익 감소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신문업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짧은 동영상으로 된 비주얼 뉴스가 최

고의 인기를 구가하면서 뉴스 회피 현상이 심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전문신문의 경쟁력도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언론사가 디지털 혁신과 기술 도입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창출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으신 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전창영 박사님과 순천대학교 천현진 순천대 교수는 신문 미디어의 혁신 전략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를 해 오신 분들입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두 분 발제자의 귀중한 의견과 전문신문 발행인들이 현장에서 느낀 많은 고민들을 결합시켜서 앞으로 우리 전문신문이 지속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전략적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신 전문신문 경영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애쓰신 협회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도 차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전문신문이 AI 기술을 활용해야 하는 방향성은 옳다고 본다. 그렇지만 AI를 활용할 경우 기사를 쉽게 쓸 수 있지만 콘텐츠 신뢰성 문제, 기자들의 이직 등 문제도 동시에 나타난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 chat GPT와 같은 기술의 등장으로 언론 소비의 행태도 'zero-click'시대로 급속 변화할 것이다. 지면신문 소비시대는 끝이 보인다. 뉴스의 비주얼화, 단순화, 전문화가 전제돼야 생존 발전할 수 있다. 신뢰성의 위기, 고용의 위기에서 AI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전문특화 저널리즘, 콘텐츠의 정확도와 생산성 향상, AI 기반 수익모델 창출, 나아가 이러한 과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문신문 발행인을 비롯한 종사자 전체의 AI 지능 확보, 즉 전사적 AI 지능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4. 정부와 정책적 접점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하지만, 이는 과거 협회를 중심으로 수차례 시도해 보았지만 성공하지 못했었고, 또한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이다. 정부정책 접점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무엇인가?

- 현 제도와 시스템 하에서 정부 또는 유관기관과 정책적 접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신문 업계가 노력해야 한다. 정부정책은 전문신문이라고 특별히 차별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린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가스신문사는 정부의 기획기사 과제를 몇 년째 수주해서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다른 전문신문사에 전파했더니, 의지가 있는 신문사는 사업에 동참할 수 있었으나, 의지가 부족한 회





사는 참여조차 시도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이는 의지만 있으면 전문신문사도 기획취재, 언론인연수, 디지털화사업, 광고수주 등 다양한 형태로 정부의 언론진흥기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5. 전문신문이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했다. 정책적 배려 대상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 앞서 얘기가 있었지만, 정부의 미디어정책은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서비스산업이 아니다.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참여 기회를 얻어 내느냐가 중요하다. 한국전문신문협회를 중심으로 학계, 산업계와 손을 잡고 국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든가 하는 등 방법으로 정책 당국을 움직여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전문업계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공감대를 획득해야 전문신문 기본법 제정과 정책적 제도화가 달성될 것이다. 최근 재단에서 AI 학습용 데이터를 판매하는 초기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97개 언론 매체가 가담하고 있다. 전문신문사가 있는가 봤더니 단 한 매체도 없더라. 기사를 공유하고 광고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장이 마련되었는데, 정부 광고 수주를 목표로 한다면 전문신문 존재감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이와 같은 퍼블릭리티(publicity)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 협회를 중심으로 그동안 전문신문발전기금 마련, 전문신문진흥법 제정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니 만큼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정책적 환경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우선 언론진흥재단이 하고 있는 사업, 역할과 기능을 정밀 분석해서 우리 전문신문사들도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고 그 여건은 어떠한지, 전략적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석하고, 정확한 방향을 설정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협회를 중심으로 전문신문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잘 찾아볼 수 있길 바란다.

정리 이진숙 기자 kosna1964@naver.com



기획 주간전문신문 Focus In 제21대 대통령 취임

국민의 선택은 정권교체…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은 국민의 선택은 정권교체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49.42%(17,287,513표)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41.15%(1439만5639표)로 두 후보의 표 차이는 289만1874표로 집계됐다. 이번 대선 투표율은 79.4%로 직전 20대 대선의 77.1%보다 2.3%p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 4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실시된 궐위선거임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 과정 없이 곧바로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즉,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로써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지난 4일 오전 6시 21분을 기해 공식 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장 먼저 국립현충원을 찾아 호국영령에 참배를 하며 첫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이후 국회로 이동해 취임선서 형태로 진행된 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던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이제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본 협회보는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를 향한 각 산업별 주요 내용을 전문언론의 시각으로 담아보고자 한다.

/ 정리 이진숙 기자 kosna1964@naver.com

■ 국제신문

국회 다수 민주당 이재명 정부 출범, 세무사법 개정 탄력받는다?

국제신문(발행인 이한구)은 지난 6월 4일 기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서 추진해 온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보도했다. 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6.3 대선에서 국회 다수 의석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한국세무사회가 야심적으로 추진해 온 14개 세무사법 개정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세무사회가 추진해 발의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정부안 3개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법안 모두 세무사업계와 친화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했다. 따라서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대통령 정부의 출범으로 세무사회의 세무사법 개정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세무사회는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 8월부터 1년여간 기재부와 ‘세무사제도 선진화 TF’ 논의를 통해 3개 법 개정안을 준비했고, 지난해 민주당 주도의 의원입법을 집중 발의했다.

그러나 변호사·세무사업계 등의 반대와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기재부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 데다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멈춰서는 바람에 법 개정은 진척되지 못했다.

■ 기독교연합뉴스

반성정적 정책 경계하고, 공감대 높은 공약 협력해야

기독교연합뉴스(발행인 장종현)는 지난 6월 11일 기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서 찾아본 기독교계 관련 정책을 살펴봤다. 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기독교 공공동정책협의회 등 교계 단체가 제안한 10대 기독교 공공정책을 채택하고, 선거일을 며칠 앞두고 간단한 내용의 ‘기독교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사회봉사에 앞장서는 기독교 활동을 지원하겠다”면서 “종교시설을 활용한 돌봄 활동과 지역 사회 봉사활동을 적극 격려하고, 종교시설 에너지비용 개편 방안을 위해 종교계와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 대통령은 “미래 사회를 위한 종교의 역할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전제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종교계 활동에 적극 협력하겠다. ‘생명존중의 날’ 등 관련 기념일 지정을 추진하며, 인구감소 문제 해소를 위한 활동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외에도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종교계 활동에 대한 적극 지원 의사도 나타냈다.

■ 내외뉴스통신

이재명 첫 추가경정예산 ‘민생안정’에 방점

내외뉴스통신(발행인 김광탁)은 지난 6월 20일 기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보도했다. 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안정에 맞춰져 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최근 경기 부진과 민생의 어려움,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해, 10조 3천억 원의 국비를 반영했고 둘째, 취약차주 채무조정 패키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5조 원 자셋째, 세수 부족 예상분을 보강하기 위해 세입경정을 10조 3천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2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함께, 국무회의 의결 후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소상공인·취약계층 채무조정 대신 공약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설과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등 2가지 방안으로 올 하반기 시행한다.

■ 농촌여성신문

이재명 정부 ‘농정대개혁’ 밑그림 나왔다

농촌여성신문(발행인 이진희)은 지난 6월 18일 기사를 통해 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농어민본부 해단식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퇴직연금제 도입과 은퇴직불제 확대 등 이재명 정부의 농정대개혁을 위한 밑그림이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16일 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중

양선대위 농어민본부 해단식에서 임미애 공동농어민본부장은 “짧은 시간 동안 현장에서 농정대개혁을 위한 큰 힘을 모아냈다”면서 “역대 최대 142개 단체의 지지 선언, 34개건의 정책협약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당선에 큰 역할을 한 농어민본부는 앞으로 농어민위원회를 통해 현장요구를 반영한 농정공약의 정책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

임 본부장은 “농어민위원회에 공약이행 점검 TF를 구성하고 국정기획위원회에 공약반영의견서를 한 달 이내에 전달해 100대 국정과제에 최대한 많이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농정공약은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확대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식량안보 보장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 전환 △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 △필수농자재 국가지원제 도입 △농어촌 주민수당 지급 △주민 주도 햇빛소득마을 조성 △농지 규모화·집적화 및 공공비축농지 확대 △임업·산촌을 탄소중립·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 등이다.

■ 데바이오

삼성도 주목한 ‘오가노이드’… 동물대체시험, 글로벌 트렌드로 급부상

데바이오(발행인 이상영)는 지난 6월 18일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 사용을 축소하고’ ‘동물대체시험을 활성화’하는 추세에 관한 내용을 보도했다. 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 사용을 축소하고’ ‘동물대체시험을 활성화’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동물실험 데이터 제출 의무를 축소하고, 그 대안으로 오가노이드 등을 장려한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더욱 탄력이 붙는 양상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오가노이드 기반의 임상시험수탁(CRO) 서비스를 개시했다. 규제당국도 국내 개발 오가노이드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발족하며 대응에 나섰다. 벡스트앤바이오, JW중외제약, 지씨셀(GC Cell), 신라젠 등 국내 기업들이 신약 개발에 오가노이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최근 출범한 이재명 정부도 ‘동물대체시험법’ 지원을 약속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임상 환경 변

화와 오가노이드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책 공약에서 동물 복지의 일환으로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실험동물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 대체시험법 개발과 표준화를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 메디칼업저버

이재명 정부의 공공의대 밑그림은?

메디칼업저버(발행인 김관홍)는 지난 6월 12일 기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보도했다. 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0년 이후 논의가 중단됐던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 역할부터 백지상태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회 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공공의대 설립 관련 정해진 바 없으며, 백지상태에서 재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공공의대 설립이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기대가 나오지만, 복지부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실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 예전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의대정원 증원 사태로 인해 증원된 정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즉 과거 공공의대 관련 발의된 법안대로 갈 것인지, 새롭게 발의하는 것 여부도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 아시아뉴스통신

국민 70% “李 직무수행 잘할 것”

아시아뉴스통신(발행인 장창희)은 지난 6월 14일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보도했다. 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5년간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대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6월 둘째 주(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그 결과 70%가 ‘잘할 것’, 24%는 ‘잘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 또는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물었다(자유응답). 그 결과 ‘경제 회복/활성화’(16%), ‘서민 정책/복지 확대’, ‘열심히/잘하길 바램’(이상 6%), ‘통합/국민화합/협치’(5%), ‘재판 피하지 말 것’, ‘계엄·내란 종식’, ‘국민 입장에서/국민을 위한 정치’, ‘조심 지킬 것’(이상 4%), ‘국가 안정/정상화’, ‘주관·소신대로 할 것’(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 NKBS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 “중동 위기, 교민 안전 철저 보호…경제 불안 확산 막아야”

NKBS뉴스통신(발행인 김성진)은 지난 6월 24일 기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내용을 보도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지역의 위기 상황과 관련해 “매우 위급하다”며 전 부처에 비상 대응 체제 구축을 지시하고, 현지 교민들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보실을 중심으로 철저히 점검하라”며 “교민들의 안전이 확고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말했다. 또한 중동 불안이 외환·금융·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경제 불확실성이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불안도 예상된다”며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합당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 외에도 중동 사태 대응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적극 협조하라”고 밝혔다.

■ 약사신문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해법 놓고 정부와 의료계 인식차 커

약사신문(발행인 이석훈)은 지난 6월 12일 기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펼쳐진 의료계 현안에 대해 보도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의대 신설을 주요 보건 의료 공약으로 제시하고,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이전부터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어오고 있다.

지역 및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는 의사 수 확충을 통해 공백을 메우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단순한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장기적으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정부 내 실무팀은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 수련 구조, 교육과정 등을 포함해 모든 내용을 백지부터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 일요저널

이재명 대통령, “문화가 꽃피는 나라” 선언… K-컬처를 세계 표준으로

일요저널(발행인 오경섭)은 지난 6월 4일 기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를 바탕으로 문화산업 핵심 정책을 보도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5년 6월 4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강력한 문화강국 실현 의지를 천명했다. 그의 취임사는 경제·복지·통합과 같은 전통적 국가 어젠다를 넘어서, 문화산업을 국가전략의 핵심으로 끌어올린 ‘문화 선언문’에 가까웠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K-팝, K-드라마, K-무비, K-뷰티, K-푸드까지 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으며,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화산업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로의 도약을 약속하며, ‘문화가 곧 국가의 미래’라는 철학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다”고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핵심 정책들을 제시했다. △1. 적극적인 문화예술 지원 확대 △2. 창작자 중심 정책 구조화 △3. 글로벌 진출 인프라 구축 △4. 디지털·AI 시대의 문화기술 연계.

■ 정보통신신문

설비투자 부진… 6G 시대 대비 통신망 고도화 필수

정보통신신문(발행인 정상호)은 지난 6월 16일 기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맞이하게 될 통신업계 이슈에 대해 보도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중심의 6세대 이동통신(6G)을 국가 핵심 전략 분야로 설정함에 따라 통신업체들의 설비투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6G 이동통신 시대에도 새로운 기술 주도권 확보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지난 2019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상용화한 성과는 기술 주도권 확보에 훌륭한 기초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새 정부는 기술주권 확보가 국가 안보에

직결된다는 판단 아래, 오픈랜(Open-RAN)·AI 기반 네트워크·위성통신 등 차세대 기술 확보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통신업계는 6G 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는 통신사가 인프라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최근 통신사의 인프라 투자가 위축된 가운데 정부 정책이 실질적인 6G 투자로 이어질 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주간조선

李대통령, ‘내란 특검’ 특검보 6명 임명… 수사 속도 붙을 듯

주간조선(발행인 정장열)은 지난 6월 20일 기사를 통해 제25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개의 특검법에 대해 보도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특검보 6명을 임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밤 김형수, 박억수, 박지영, 박태호, 이윤제, 장우성 등 특검보 6명의 임명을 재가했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7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인사혁신처에 임명요청안을 제출한 바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임명 요청일로부터 5일 안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조 특검은 출범 첫새만인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는 등 이미 수사를 개시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특검보를 임명하면서 수사에는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순직 해병 외압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의 특검보 4명도 조만간 임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특검은 지난 18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추천했다. 특검법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 3일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 쿡앤세프

‘열같이 국수’에서 출발한 리더십 – 음식으로 읽는 이재명 정부

쿡앤세프(발행인 정운전)는 지난 6월 4일 기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다시 한 번 정리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죽기 전에 꼭 먹고 싶은 음식이 뭐냐”는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답한 음식은 다름 아닌 ‘열같이 국수’였다. 고급 음식도, 화려한 요리도 아니었다. 어머니가 여름 마루에서 해주던 차가운 국

수 한 그릇. 이 단순한 한 끼는 대통령의 기억 속에 각인된 생존과 공동체, 그리고 정서의 압축이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은 농민 보호를 중심에 둔 공약들을 내세웠다. 쌀값 정상화, 농산물 가격 안정화, 농지 보전, 전략작물 지원, 공공비축 확대 등은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뚜렷한 의지를 보여준다.

눈에 띄는 것은 ‘식량주권법’ 제정 추진이다. 이는 먹거리를 국가의 기본권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선언이다. 지역푸드플랜, 로컬푸드 활성화, 농촌 식품 사각지대 해소 등의 구상도 포함되었다.

‘열같이 국수’의 기억이 이재명 정부의 식탁 위에서 정책이 되고 제도가 되려면, 그만큼의 구체성과 추진력이 따라야 한다. 음식은 정치를 말하고, 정치는 음식을 증명해야 한다. 새로운 정부의 식탁은 이제 막 차려지기 시작했다.

■ 한국교육신문

교원강화·업무경감 “본질적 접근 긍정적”

한국교육신문(발행인 강주호)은 지난 6월 16일 기사를 통해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교육공약을 분석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 가운데 일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우선 교원 보호 제도 확립은 과도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 경감, 민원처리 시스템 체계화, 교사 ‘마음돌봄 휴가’ 도입, 교사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헌법이 보장한 권리 회복) 등을 담고 있다. 이는 교육계의 일반적 요구와 거의 맞는다는 것이 교총의 분석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교총 교육정책국은 “학교지원 전담기구 법제화 및 활성화 통한 비본질적 행정업무와 교원 간 분리 추진, 교원의 마음 건강 증진 지원제도 정착 필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필요 등은 교육계가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특히 행정업무 학교 밖 이관, 폐지를 위한 ‘학교지원 전담기구’ 법제화 등의 경우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한국임업신문

이재명 정부, 지속 가능한 산림 정책으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한국임업신문(발행인 김종철)은 지난 6월 16일 기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산림·임업정책의 방향에 대해 보도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의 정부’를 표방하면서 출범한 가운데 산림·임업정책의 방향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임업인들은 농업분야에 버금가는 수준의 임업직불금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경제회복이라는 큰 틀 안에서 향후 추진될 산림·임업 정책을 통해 산림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가스신문 창간 36주년 특집] 현장의 소리를 듣다

“1~3년은 짧다” 야속한 단발성 사업·지속성이 중요

현재 우리나라는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확산에 따라 수소산업 전주기에 걸쳐 전문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기술 진보 및 시장 확장 속도에 비해 인재양성 체계는 매우 미흡하다. 가스신문은 이번 창간특집호를 맞아 수소산업 활성화의 핵심인 인력양성과 관련해 해당 사업 관계자들을 만나 애로사항, 대안을 소개한다.

수소전주기 해당되는 ‘Z형 인재상’ 제시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지역연계형 수소산업 혁신인력양성사업을 진행한 아주대학교는 ‘수소경제를 구현하는 Z형 인재’를 인재상으로 제시했다. Z형 인재란 수소경제의 처음과 마지막 혹은 양극단인 수소의 생산과 활용뿐만 아니라 이 사이를 연결하는 저장, 운송을 안전·환경·인프라 등 모두를 아우르는 인재를 뜻한다.

아주대학교는 학부에 3개의 수소·연료전지 관련 마이크로 전공을 운영하였으며, 대학원에는 4개의 트랙을 운영하여 학부 및 석·박사과정에서 지난 3년 동안 215명이 지원을 받고 119명이 졸업했다. 졸업생들은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수소와 관련한 중견·중소기업에 취업해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 유수의 대학원에 진학하여 미래 수소산업을 견인할 연구자로 성장하고 있다.

아주대학교 박은덕 교수는 “학생들이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서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난 3년 동안 장학금 지급과 핵심 연구 장비를 추구함으로써 최신 연구기법을 실제 실험과 연구에 활용할 때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앞으로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력양성에 대한 지원이 1~3년에 그치지 않고 5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혁신인력양성사업은 아주대를 포함한 3개의 대학교만이 3년 동안 진행했으며, 나머지 10개 대학은 1년만 진행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진행되던 수소 관련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다반사인 만큼, 비용이 크게 들고 안정성이 낮은 R&D 사업보다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러올 수 있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분명 존재한다.

그린암모니아 미래 위해 산·학·연·관 협력 강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년만 사업을 진행한 단국대학교는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인재양성’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충청남도, 보령시, 서산시, 홍성군, 중부발전, 서부발전, 두산퓨얼셀, 씨엔엘에너지, 지필로스 등 지자체를 포함해 다양한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교육인프라 구축, 전문교과 과정 운영, 청정수소암모니아 연구역량 강화, 취업 연계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취업연계 현장실습을 포함해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재개발, 현장견학, 수소기술교류회, 취업특강 등의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그린암모니아와 관련한 연구는 단국대학교가 거의 유일하며, 이러한 교육과정은 지난 2021년에 발표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했다. 2050년 수소수요량의 약 82%가 암모니아 형태로 해외로부터 국내 항만을 활용하여 수입되는데, 이 중 32%가 당진과 태안으로 유



입되어, 석탄발전 및 수소로 전환 후 LNG 혼소발전 및 수소차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단국대학교 이창현 교수는 “해외에서 생산하는 수소는 액체 암모니아 상태로 수입되어, 용도에 따른 상변화 및 화학적 변환을 거치기 때문에 이러한 에너지변환과정을 기술·경제·정책·환경적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한 교과 및 비교과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을 학·석·박 과정에서 제공하고자 했다”며, “또한, 수소분야 전문가들이 공동교안을 활용하여 진행한 비교과과정은 참여 및 수요기관 뿐만 아니라, 본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산·학·연·관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수소기술 및 산업에 대한 현실적 이해를 돕고, 수소 및 암모니아에 대한 수용성 개선에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기업 연계한 1:1 멘토링 시스템 ‘호평’

수소인프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잘 구축되어 있는 창원에서 창원대는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직접 체득할 수 있는 현장실습, 캠퍼스다자인 등과 같은 다양한 비교과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수요에 맞는 현장 실무 역량을 키우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에 출범한 경남 수소얼라이언스를 통해 지역 수소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활발히 운영 중이며, 기업의 기술 애로점을 해결하는 산·학 공동 연구를 통해 기술이전을 달성해 예비수소전문기업에 선정되는 성과도 거두었다. 이외에도 추후에 진행할 RISE 사업에도 경남 수소기업 및 유관기관 등 다양한 기관들과 함께 협력하여 산·학·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학생들의 현장교육이 가능하도록 개방적으로 실습을 제공해야 하며, 대학에서는 현장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을 제도화해야 한다. 창원대학교는 학생을 위해 5년째 ‘1:1 멘토링 시스템’을 진행 중이다. 이 시스템은 교수·학생·기업이 16주간 함께 움직이는 교육과정이며,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좋아 대학원뿐만 아니라 학부까지 정규 교육 과정으로 만들려고 추진 중이다.

정대운 교수는 “창원대학교에서만 진행 중인 1:1 멘토링 시스템은 학생들에게 반응이 매우 좋고, 최근 기업과 대학이 윈윈할 수 있는 재직자 교육을 지역연계형 수소산업 혁신인력양성 사업으로 진행하려 했지만, 사업기간이 너무 짧아 아쉬움이 크다”며, “수소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력양성이 수반되어야 하고, 인력양성은 단기간 내 대응하기에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선제적인 준비와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가스신문 창간 36주년 발행인 기념사]

풍랑 속에 시대 중심을 지키며



양영근 발행인

늘 존경하는 가스신문 애독자 여러분! 그리고 가스가족 여러분!

여러분께서 아끼고 키워오신 가스신문이 이번 5월 4일로 창간 36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스신문은 오로지 가스 세상을 담는 전문신문의 소임뿐만 아니라, 가스인들의 활발한 정보교류와 소통에도 기여하는 ‘열린 사랑방’ 역할도 수행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여기에는 종이신문의 인기 하락에도 불구하고 늘 애정 어린 정가구독료를 챙겨주시는 애독자 여러분, 그리고 힘든 경영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격려 광고로 후원해 주시는 광고주 여러분, 또한 33년째 꿈과 희망을 같이하고 있는 전국 107명의 독자위원(명예기자) 여러분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역사입니다.

우리 가스신문 임직원들은 그 고마운 은혜를 가슴 깊이 간직하면서, 앞으로도 가스산업의 꿈과 미래를 만드는 신문, 꿈은 잣대의 바른 신문을 지향하며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 가스산업의 미래는 대단히 불투명하다고 전망됩니다. 우리 가스산업은 장장 60년(울산 정유공장 준공 기준), 세대가 두 번이나 바뀌는 역사 속에서 크게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근래는 에너지 전환의 시대적 흐름 속에 양극화와 침체의 길로 들어서고 있으며, 특별한 비전도 보이지 않는 다소 우울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 상황은 경제 위기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관세 폭탄, 지정학적 위기 등 난제들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잠시 멈춤과 성찰의 시간’을 갖고 큰 그림 속의 우리를 살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인도의 국부 마하트마 간디는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7가지 징조를 1)노동 없는 부(富) 2)양심 없는 쾌락 3)인격 없는 지식 4)도덕성 없는 상업 5)인간성 없는 과학 6)희생 없는 종교 7)원칙 없는 정치로 꼽았습니다. 혹자는 지금 대한민국이 이러한 국가 멸망의 징조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개탄하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지적과 호소에 정치인들도 국민도 ‘우이독경(杞耳識經)’이라는 점입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과 협치’라는 말은 옛말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제 모두 제정신을 차리고 분수를 지키며, 나라와 가스산업의 미래, 우리 직장·가정의 안정을 위하여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를 조용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비록 가스신문과 수소뉴스가 거대한 일반매체가 아닌 전문지일지라도, 가스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더 열심히 세상을 담고, 시대를 품고, 세대를 뛰어넘겠습니다. 언론의 본질인 건전한 비판자와 감시자의 사명에도 충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답답할 때 무엇인가 답하는 신문, 정보의 풍랑 속에서 시대의 중심을 지키는 신문을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창간 36주년의 가스신문이 이러한 가치 있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애독자·광고주·가스가족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이 생동하는 5월의 신통처럼 빛나고, 아름다운 꿈의 향기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역할 필요성 ‘대두’

정부는 교육계뿐만 아니라 수소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수요·공급에 애로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산업·기술 인력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4월 수소산업 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수소기업 총 2,637개사 중 업종별로 활용 분야가 1,247개사(47.3%)로 가장 많았으며, 유통(저장)분야 715개사(27.1%), 생산분야 388개사(14.7%), 서비스분야(10.9%)이다. 그 중 대기업은 215개사(8.2%), 중견기업은 422개사(16%), 중소기업이 2,000개사(7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수소산업이 수소차와 연료전지 등을 앞세워 인프라 확장에 힘썼다는 것이 해석되며, 이에 맞게 수소 유통과 저장 분야도 뒤따라오고 있음을 뜻한다. 기업 유형으로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이지만, 대기업, 중견기업 등도 수소사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소사업이 중장기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력군을 조사하자 기술·기능직이 58.2%, 연구개발직 30.5%, 사무관리직 11.3%의 결과가 나왔다. 이어서 수소분야 인력 확충을 위해 정부 노력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졸자 취

업연계 및 실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신설·운영이 38.1%로 가장 높았으며,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 직업훈련시설 설치·운영이 30.6%, 특성화고, 환경관련 학과, 교육과정 등 신설 및 개편 25.5%, 퇴직인력 재취업 및 채용플랫폼 개발, 프로그램 운영·지원 2.4%, 특성화대학원 등 석박사 과정 개발 2.3%, 기타 1.1% 순서이다.

결국, 인력양성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기능, 연구개발 등에 집중해야 하며, 정부는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취업연계 및 실무역량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대학원·대학교·고등학교 등에 수소 관련 교육과정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한국수소연합은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지원 과제를 통해 지난해 6월부터 오는 2026년 5월까지 수소생산, 저장, 운송 등 공급분야와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 모빌리티, 수소발전 및 산업용 수소, 서비스업 등으로 산업을 구분하여 협의체 구성원을 배치했다.

사업 담당 관계자는 “협의체 지원 과제를 통해 수소산업 수급분석 방법론을 구축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인력양성 로드맵 수립, 표준산업 분류코드, NCS분석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또한, 제1회 수소산업 채용박람회에서 인력양성 포럼을 개최하여 산학연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해 큰 호평을 얻었다”고 말했다.

[원예산업신문 창간 30주년 발행인 기념사]

위기를 기회로 다시 30년을 준비하자



박두환 발행인

친애하는 전국의 원예인 여러분!

저희 원예산업신문이 창간된지 4반세기를 훌쩍 넘어 어느덧 이립(而立)의 나이를 맞았습니다. 우리나라 원예산업

이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점에 태동한 원예산업신문이 큰 역경을 딛고 오늘의 참다운 신문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국내 유일의 원예산업을 대변하는 전문지임을 일깨워주시고 채찍질해 주신 원예인 및 애독자 여러분들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 아닌가 회고해 봅니다.

원예산업신문이 걸어온 짧지 않은 세월동안 우리나라 원예산업은 큰 변화와 함께 그 위치도 상당한 부분 향상돼 왔습니다. 특히 시설원예는 생산성 뿐만아니라 관련산업까지 신장시

키는 백색혁명 시대를 열었고, 최근에는 세계 시장의 먹거리 및 농업기술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로 발돋움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이러한 지속적 발전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는듯하여 미래에 대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최근 우리 원예산업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도시화에 따른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 등으로 인한 생산의 불안정성이 탈농을 부추기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가 다르게 접근해 오는 기후위기는 미래를 열어가는 원예산업으로서 큰 위험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 속 깊숙이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최대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 장마, 한파 등 극단적인 기후 현상은

우리 농업 최대의 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마트팜과 같은 첨단 농업 기술의 도입이야말로 기후위기에 필수적인 대응책이 아닌가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단순히 농업 기술의 혁신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의 협력과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정부, 농업인, 연구기관, 그리고 소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최근 업친데 덮친격으로 지난 1월 출범한 미 트럼프 2기 정부의 통상압력은 우리 원예업계 앞날에 큰 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 대한 미국측의 요구가 구체화하는 등 양국 간 협상이 본격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미 행정부가 요구한 농산물 등이 국내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분야라는 점에서 향후 또다른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달이면

유예시기가 만료돼 어떤 형태로든 한국측엔 불리한 결과로 나타날 것이 불을 보듯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협상 추이에 기대를 걸어 보지만 워낙 강경한 트럼프 정부의 기세를 과연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의문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위기감 속에 새로운 정부의 농업정책이 타 정책에 비해 후순위로 밀려 나는 일이 재연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창간 30주년을 맞아 다시한번 각오를 다져 봅니다. 원예산업에 잠재되어 있는 기회를 찾고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감 있는 전문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역경에 부딪친다 하더라도 모두가 함께 한다면 미래 한국 원예산업은 매우 밝다는 생각입니다.

30년을 한결 같이 원예산업신문의 버팀목 역할을 해준 품목농협과, 그리고 원예인, 애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숙여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예산업신문 창간 30주년 발행인 기획] 과수산업, 품목 중심 조직화가 해답이다

“과수 없는 원예 없고, 품목농협 없는 과수산업도 없다”

기후위기와 통상환경 변화, 인력난과 유통 불균형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우리 과수산업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핵심은 구조개편이며, 그 중심에는 품목 중심의 조직화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생산자 중심의 협동체계 회복과 품목농협의 본래 정체성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원예산업신문은 창간 30주년을 맞아, 초대 독자이자 과수산업 조직화의 산증인인 윤익로 전 한국과수농협연합회장을 만나 품목농협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미래 30년에 대한 고견을 들었다.

△ 장호열 원예산업신문 편집국장: 원예산업신문 초대 독자이자 애독자로서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원예산업신문이 원예산업 발전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걸음을 뚝지 어언 30년이 됐습니다. 저희 신문과 같이 하시면서 지켜 봐왔던 소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윤익로 전 한국과수농협연합회장: 신문은 시대를 담는 그릇이며, 농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수단이다. 원예산업신문이 창간될 당시, 원예인의 권익을 대변해 줄 언론은 거의 없었다. 나는 전국을 다니며 품목조합의 독립성과 필요성을 외쳤지만, 중앙회 중심 구조 속에서 늘 고립돼 있었다. 제도권의 언어가 현장의 언어를 덮고, 농민의 현실은 공론장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그런 시절, 원예산업신문은 단순한 매체가 아니었다. 침묵하던 언론 사이에서 이 신문은 농민의 이야기를 기록했고, 중앙회와의 갈등에도 흔들리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짚어왔다.

과수연합회를 창립할 당시, 장소 하나 구하기도 쉽지 않았고, 조직 구성을 놓고도 견제가 심했다. 대부분의 언론이 외면할 때, 원예산업신문은 연합회 창립의 의미와 품목농협의 존재 이유

를 지속적으로 조명했다. 그 보도는 여론의 흐름을 바꾸었고, 내 외침을 사회적 논의로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언론은 싸우는 이의 손을 잡아야 한다. 단순히 소식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동체가 가야 할 길을 함께 고민하는 나침반이어야 한다.

원예산업신문은 지난 30년간 글로 싸우고 지면으로 연대해왔다. 나는 지금도 이 신문을 '동지'라 부른다. 언론은 원래 그렇게, 현장과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국내 원예산업의 근간을 이루어 오고 있는 우리나라 과수산업의 변천에 대해 회고해 주시지요.

과수산업은 단순한 작목의 축적이 아니라, 품목 중심 협동조직의 형성과 발전 역사와 맞닿아 있다. 1917년 경북 능금조합 설립을 시작으로, 1920~40년대 배·애산·충북·전주 등지에 품목별 조합이 생기며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이들 조합은 고부가가치 품목을 기반으로 한 생산자 중심 조직이자, 지역 단위 품목특화의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1961년 농협법 제정 이후 정부는 단위조합 중심으로 구조를 재편했고, 특수조합은 품목농협이라는 이름으로 제도권에 흡수됐다. 형식은 유지됐지만, 독립성과 자율성은 크게 제약을 받았다. 나는 협동조합의 본질은 현장의 필요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사과, 배, 감귤, 복숭아, 포도 등 주요 과수는 각각 품종과 시장 구조가 달라 일괄된 체계로는 대응이 어렵다.

품목농협은 생산자 중심의 세밀한 대응 조직으로서, 단위조합과 다른 역할과 정체성을 가진다. 과수는 지역 산업이자 농민 생계의 기반이다. 배는 충청, 사과는 경북, 감귤은 제주 등 지역별 특화 품목은 농민의 땅과 함께 협동조합 틀 안에서 성장해왔다. 과수 품목은 생산을 넘어 지역 소득과 문화의 정체성으로 기능해왔다.

현재 과수산업은 기후변화, 수입 개방, 유통구조의 불합리, 인력난 등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냉해·일소 피해와 재배적지 복상은 현실로 다가와 있으며, 이대로면 산업의 지속가능성도 위협받는다. 그러나 나는 과수산업이 여전히 농업의 중심축이라 믿는다. 과수 없는 원예는 없고, 품목농협 없는 과수산업도 있을 수 없다.

△ 원예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협동조합 활동을 하시면서 원예농협의 최다선 조합장으로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 품목농협의 역사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품목농협은 단위조합과 본질이 다르다. 출발부터가 농민의 필요에서 비롯됐고, 생산부터 유통, 수출까지 같은 작목을 중심으로 고통과 성과를 함께 나누는 조직이다. 그 뿌리는 특수조합이며, 조합장은 주권자가 아니라 현장을 대표하는 봉사자라는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품목조합은 신용사업에 치우치며 본래의 사명을 흐리게 만들었다. 품목농협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에 대한 회의가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앞으로 품목농협은 현장 중심의 특수성과 자율성, 책임성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단순한 경제조직을 넘어, 생산 기반을 지키고, 작목별 전략을 주도하며, 정부 정책에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 조직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것이 품목농협 본연의 길이며, 농업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이다.

△ 과수농협연합회 주 회원이 원예농협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과수산업은 농민 개인이 대응하기에 구조적으로 벼차다. 유통, 가격, 수급의 불안정은 조직의 힘으로만 조정이 가능하며, 품목 단위 협동 없이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이런 구조에서 원예농협은 산지 기반의 실무 조직이다. 생산자와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품질 관리, 조직화, 공동출하, 물류 기반 구축 등을 맡고 있으며, 산업의 기초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주체다.

과수농협연합회는 개별 농협의 공동 이익을 조율하고 정책 대응, 제도 개선, 수출 전략 수립 등 상위 기능을 담당하는 전략 조직이다. 원예농협이 소발이라면 연합회는 머리다. 방향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실행력 없는 전략은 의미 없다.

△ 앞으로 우리나라 과수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라 구조에서 나온다.

첫째, 품종 다양화와 대목 개선이 시급하다.

둘째, 기후변화에 대응할 스마트 시설과 방제 시스템이 현장에 뿌리내려야 한다.

셋째, 유통과 수출은 개별이 아니라 조직 단위로 협동화돼야 한다.

이 모든 전략의 중심에는 '조직화된 품목농협'이 있어야 한다. 혼자서는 버틸 수 있어도 바꿀 수는 없다. 과수산업은 단체전이다. 전략 없는 개별 생존에는 미래가 없다.



회원사 인사

독서신문

노웅래 전 국회의원 상임고문 선임

독서신문·이뉴스투데이(발행인 방재홍)을 발행하는 서울미디어그룹이 지난 6월 17



일 4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노웅래 전 의원을 상임고문<사진>으로 선임했다.

노 고문은 매일경제와 MBC 가지를 거쳐 제17·19·20·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으며, 제9대 민주연구원장을 역임했다.

서울미디어그룹은 “언론계와 정계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노 고문의 합류가 그룹의 전략적 방향 설정과 사회적 역할 확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 고문은 “서울미디어그룹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신뢰받는 언론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신문

정성호 신임 발행인 선임

정보통신신문은 지난 2월 27일 2025년도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 신

임 발행인에 정성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전임 중앙회장<사진>을 선임했다. 정성호 신임 발행인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제22대 중앙회장과 정보통신공제조합 제12대 이사장, ICT폴리텍대학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성결신문

안성우 총회장 추대형식 선출

한국성결신문을 발행하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119차 총회를 열고 임원선거를 통해 직전 회기 부총회장을 지낸 안성우 목사<사진>를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했다.



이후 총회 둘째 날인 지난 5월 28일에는 창립 제119주년 기념 및 총회장 아취임식을 가졌다.

안성우 총회장은 “교회가 세상과 함께 걸으며 십자가와 부활의 이점을 향하고 싶다. 미래를 준비하며 오늘을 놓치지 않겠다. 큰일을 이루기보다는 미래를 향한 징검다리 하나를 놓는 심정으로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회원사 동정

간호사신문

신경림 간호협회장, '나이팅게일 기장' 수상자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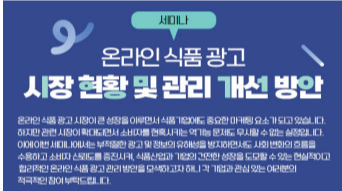
간호사신문(발행인 신경림)을 발행하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사진>이 '제50회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장'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5월 14일 밝혔다. 나이팅게일 기장 전달식은 오는 10월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기념식에서 열릴 예정이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장(The Florence Nightingale Medal)은 나이팅게일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12년 제정됐다.

식품음료신문

'온라인 식품 광고 시장 현황 및 관리 개선 방안' 세미나



식품음료신문(발행인 이군호)이 식품안전생생재단과 오는 7월 1일 오후 1시부터 aT센터 창조룸에서 '온라인 식품 광고 시장 현황 및 관리 개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식품 광고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적절한 광고 및 정보의 유해성을 방지하는 한편 선택과 창작의 자율성을 증진시키고, 식품산업과 기업의 건전한 성장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보령 업무협약



의협신문(발행인 김택우)을 발행하는 대한의사협회는 보령과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지원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6월 13일 밝혔다.

양측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각종 봉사활동에서 공동 의료지원으로 일상 속 사회적 약자를 함께 돌보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장업신문

장업신문-임포트지니어스 업무협약



장업신문(발행인 이관치)은 지난 2월 15일 임포트지니어스와 업무협약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고, 올해 3월부터 미국과 일본 등 K-뷰티의 수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국가의 수출입 정보를 제공기로 했다.

이번 협약식은 장업신문이 그동안 화장품 산업의 발전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임포트지니어스의 데이터를 활용해 중소기업 등이 편리한 수출 활동과 현지 바이어 발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축산경제

산불 피해 복구 성금 전달



축산경제신문(발행인 김일호)이 경북 의성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 모금에 동참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김기윤 축산경제신문 회장은 지난 4월 15일 의성군청을 방문해 김주수 의성군수에게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축산경제신문은 지난 4월 16일 산불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특별성금을 모금 중인 전국한우협회와 대한한돈협회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도 전달했다.

KFFNEWS

한국자유총연맹-무주덕유산리조트 업무협약



KFF뉴스(발행인 강석호)를 발행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이 지난 6월 18일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자유총연맹은 연맹 회원의 휴양과 복리후생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주덕유산리조트 측은 한국자유총연맹이 주관하거나 관계하는 행사 진행 시 장소 제공과 운영 협조 등 전반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전문신문협회보

1989년 5월 1일 창간
www.kopma.kr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원사

한국전문신문협회 임원사

이 컷은 본 협회 회원사임을 나타내는 표시

회장·발행인 김광탁 명예회장·편집인 박두환 편집고문 김시중

부회장 김관홍 정재환 김종철 | 감사 백용태 오경섭
이사 이군호 박연준 강현욱 김종규·홍 준 방두철 | 고문 함용현 김시중·유태우·이덕수·양영근
김성진 양옥석 조경욱 주동담·유 철 | 조창희

07217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당산동4가) 당산 SK V1 센터 E동 407호
대표전화 (02)334-7251 팩스 (02)334-7279
구독신청·광고문의 (02)334-7252 메일 kosna1964@naver.com

발행처 한국전문신문협회 | 인쇄처 한국씨티에스

(주)한국씨티에스

전문신문 제작의 역사 SINCE 1989

한국전문신문협회와 한국씨티에스는
전문신문의 역사를 함께 합니다.



본사
서울시 중구 중림로 50-1 2F
관리부 02 362 1199 영업부 02 362 6677 전산실 02 362 5311

제작센터
서울시 부일로 815번길 56-67 (운수동)
02 2684 3377



2025년 3~5월 정기간행물 신규 등록 현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기간: 2025.03.01.~2025.05.31.)

등록번호	제호	회사명(법인명)
서울 다50835	무당세계신문	무당세계신문사
서울 다50834	기독교신보(CHRISTIAN TIME)	기독교신보사
서울 다50833	한국이주민다문화신문	한국이주민다문화신문사
서울 다50832	주간 대한노인회보	(사)대한노인회
서울 다50831	기독교 마라나타신문	기독교마라나타신문사
서울 다50830	목사신문	목사신문사
경기 다50801	세계복음화신문	세계복음화신문사
경기 다50800	수도권 공동주택신문	수도권공동주택신문사
경기 다50795	퍼스트 제너럴 타임즈	(주)클래싱
경기 다50796	퍼스트 주니어 타임즈	(주)클래싱
경기 다50797	퍼스트 키즈 타임즈	(주)클래싱
경기 다50798	퍼스트 킨더 타임즈	(주)클래싱
경기 다50799	퍼스트 틴 타임즈	(주)클래싱
경기 다50794	대부도저널	대부도저널(주)
인천 다06155	시부동산뉴스	시부동산뉴스사
인천 다06153	더 국제뉴스	더국제뉴스(주)
인천 다06154	인천매거진	인천매거진(주)
인천 다06152	포터매거진	(주)비서실장
부산 다04529	연예인신문	연예인신문사
부산 다04528	동네신문 동구이바구	동네신문 동구이바구사
충남 다01400	더플러스계룡	더플러스계룡사
충남 다01401	더플러스논산	더플러스논산사
충남 다01402	더플러스청양공주부여	더플러스청양공주부여사
충남 다01403	더플러스아산·천안	더플러스아산·천안사
충남 다01404	더플러스충남·내포(홍성·예산)	더플러스충남·내포사
충북 다01289	더플러스 충북청주오송오창	더플러스충북청주오송오창사
경북 다01554	동구일보	(주)영남미디어그룹
경북 다01553	안동신문생활타임즈	(주)안동신문사
전남 다00459	진도문화예술신문	진도문화예술신문사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추후보도문 게재 사례

2023서울조정2781 추후청구

새총과 쇠구슬로 동료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신청인이 유죄 판결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 항소심 무죄판결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는 후속보도를 게재하여 취하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이 학교 옥상에서 쇠구슬을 넣은 새총으로 직장 동료의 차량을 파손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피신청인 언론사가 1심 판결문을 기반으로 기사를 작성하긴 했으나 해당 보도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알릴 의무가 있다며 추후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추후보도문 대신 무죄 판결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는 후속보도를 제안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수용하여 취하로 종결됐다.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 이외에 11개 매체의 기사를 대상으로 추후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각 사건은 모두 취하(추후보도, 후속보도)로 종결되어 해당 보도로 인한 피해가 모두 구제되었음.

자료: 언론중재위원회

책자발간

약업신문

한국약업사(韓國藥業史)

약업신문(발행인 함태원)이 최근 ‘한국약업사(韓國藥業史)’ 보정판을 출간했다.

1972년 약업신문이 처음 발간한 한국약업사(韓國藥業史/홍현오 저)는 한국 근대 약학 및 약업의 발자취이자 한국약업 성쇠(盛衰)를 망라한 유일무이한 기록이다. 창업시대, 유년시대, 혼란시대, 재건시대로 시기를 분류하여 약학, 약업계 관련사(事)를 기술하고 있으며, 후미에 화장품업계 소사(小史)와 주요 약업관련 연표를 덧붙이고 있다.

약업신문은 2024년 창간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약업사 보정판 출간위원회(위원장 심창구 서울대 약학대학 명예교수)를 구성, 세로쓰기와 한자 중심으로 된 원본 한국약업사의 내용 전부를 현대 한글 맞춤법 표기법에 따라 수정하고, 내용중 일부에 대한 각 주와 연보, 인명색인 등을 재정리 편집하여 한국약업사(보정판)을 출간했다.

함태원 약업신문 대표는 발간사에서 “이 책은 최초 출간 당시 전 약업계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킨바 있으며 이후 많은 연구자들의 참고문헌, 인용자료로 활용되었으며 지난 2017년 편찬된 한국약학사(韓國藥學史)를 비롯한 다수 학술지 논문 집필에 중요한 참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료적 가치가 큰 책이지만 이미 절판되어 관심 있는 이들의 동반자가 되지 못하고, 원문 세로쓰기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와 한자어들이 많아 이를 보완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 심창구 서울대약대 명예교수, 김진웅 대한약학회 약학사 분과학회 회장을 주축으로 ‘한국약업사 재발간위원회’를 발족, 지난 2년간 재발간 관련 제반사업을 진행하여 그 결과물로 한국약업사 보정판을 내게 되었다”고 그간의 경위를 소개했다.

심창구 출간위원장은 “우리의 시선이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과거사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을 때 기록으로 남은 역사는 비로소 미래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미래학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정판 책자 발간의 의미를 정리하고 ‘한국약업사가 널리 보급되어 모든 약업인들이 근대 한국약업사를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고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약업사를 집필한 홍현오 前 약업신문 사장은 1924년 서울에서 출생했으며 일본 호세이대학(法政大學) 상과를 거쳐 해방 직후 언론계에 투신했다. 여성잡지 ‘여성계(女性界)’ 편집장, 대중잡지 ‘실화(實話)’, 종합잡지 ‘신태양(新太陽)’ 편집장, 서울신문사 기획위원 및 연감(年鑑) 편찬실장 등을 거쳐 약업신문으로 옮겨 편집국장, 주간, 사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가격: 100,000원 / 문의: 02-3270-0114



간호사신문

2024 간호통계연보

간호사신문(발행인 신경림)을 발행하는 대한간호협회가 근거기반 간호정책 수립 및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록한 ‘2024 간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간호통계연보는 매년 발간되고 있다.

간호통계연보는 △면허 및 자격 현황 △보건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비 보건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보건의료기관 활동 조산사 △간호 교육 △간호사 면허 취득 및 취업 현황 △국제 간호통계 등 7개 주제로 구성됐다.

이번 2024 간호통계연보에서는 다음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첫째, 남자 간호사의 수가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성별 항목이 새롭게 포함됐다. 둘째, 국가 및 지방 공무원 중 간호사 면허 소지자 조사 데이터를 추가해, 간호사 면허 소지 공무원의 직무 유형과 인력 실태를 파악했다. 셋째, 비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수를 활용하기 위해 국가승인통계 자료인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데이터를 추가했다.

간호통계연보는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정보자료실→간호관련자료’에 탑재돼 있다. 홈페이지에서 회원 로그인을 한 후 열람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가업승계 세무·비상장주식평가 세무

세무사신문(발행인 구재이)을 발행하는 한국세무사회가 자체 발간한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 50’의 열두 번째 ‘가업승계 세무’, 열세 번째 서적 ‘비상장주식평가 세무’를 발간했다.

먼저 열두 번째 시리즈인 ‘가업승계 세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대가 고경희 세무사가 가업 승계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과 저자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을 제시하고 해석 사례 등을 설명해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또 관련 서식뿐 아니라 작성법, 예시 등을 다양하게 넣어 다각적인 시각으로 가업승계 세무를 풀어냈다.

다음으로 열세 번째 시리즈는 ‘비상장주식평가 세무’로, 해당 서적 역시 고경희 세무사가 집필했다. 이 책은 상장하지 않은 주식에 대한 평가 방법과 절세 방법 등 세무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과 저자의 풍부한 경험이 녹아들어 있어 회원들의 업무 역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발간된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 50’의 열두 번째, 열세 번째 서적은 조세자료 구독 회원들에게 무료로 배포했으며, 세무사회 조세전문서점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다.

가격: 9,000원 / 문의: 02-6011-1777



한국전문신문협회는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주간전문신문 납본을 대행해 드립니다

누구나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도서관법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규정에 따라 그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자료는 국가의 지적문화유산으로 영구 보존하여, 정보 제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 납본대상자료 : 도서, 연속간행물(잡지, 신문, 대학 및 학회지, 정부간행물) 등
- ◆ 제출시기 및 부수 :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각 2부씩
- ◆ 제출처 : 한국전문신문협회 납본센터,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과

한국전문신문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위임을 받아 납본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니 국립중앙도서관에 직접 납본이 어려우신 신문사에서는 자료를 보내주시면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을 대행해 드립니다.

우편 및 방문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SK V1센터 E동 407호

문의 ☎ 02-334-7251~2

왜? 전문신문에 광고해야 하는가?

정보 홍수시대에 전문신문은 광고매체로서 장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문신문은 일반신문과 같이 계절이나 요일에 의한 부수의 변동이나 신문구독자의 변동에 따른 불안정이 없다.

전문신문의 광고는 광고주가 원하는 광고 시장이 명확하다. 광고목표에 도달하기 쉽기 때문에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독자의 관심이 높은 기사와 병행해서 게재되는 전문신문 광고는 광고의 충격이 높다. 따라서 광고주가 자사 상품이나 기업 이미지에 알맞은 전문신문을 선택하면 매우 효과적인 광고가 가능하다.

전문신문은 일간지와 달리 한번 보고 버리는 신문이 아니라 오래 보존됨으로써 광고의 생명이 길다.

전문신문은 지면 허비가 적기 때문에 타 매체와의 비교해서 광고비용이 싼 효율적인 매체이다.

전문신문은 독자의 목적 의식과 강하게 밀착되어, 전문사항에 대하여 높은 안목을 갖고 편집되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관심도도 높다.

전문신문의 기사면은 비교적 시각효과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면이 상대적으로 주의집중효과를 크게 받을 수 있다.

전문신문 광고시점에 이벤트, 기획행사 등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유통경로에 쉽게 접근하면서 광고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일반신문, 뉴미디어의 정보량 범람의 시대에 독자는 정보에 대해 방어적, 선택적 경향이 강해져 전문신문을 더 신뢰하게 된다.

특히 한국전문신문협회에 가입된 전문신문은 그 품격이 검증된 만큼, 안심하고 광고를 의뢰할 수 있는 좋은 매체이다.